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www.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 모의 재외선거, 보스톤서 16명 투표

“내년 4월 총선 시스템 점검이 주목적”  
총영사관 직원 제외한 한인 투표자 단 3명  
선관위 집계, 총영사관 집계와 다른 24명



지난달 29일 보스톤 총영사관에서 실시된 모의 재외선거에 참석한 한인인 총 16명으로 이중 13명은 총영사관 직원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2011년 모의 재외선거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보스톤 총영사관에서 실시된 모의 재외선거에 총 16명의 한인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총영사관과 선관위의 등록수 집계와 달라 의구심을 자아냈다.

보스톤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접수기간 동안 총 19명의 한인이 보스톤 총영사관을 통해 투표 참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29일 실시된 모의 재외선거날 총영사관을 방문해 직접 투표를 한 사람은 16명이었다. 이중 13명은 총영사관 직원이었다.

한편, 선관위가 지난달 25일 홈페이지에 공지한 재외선거인명부에 따른 등록인 수는 보스톤 총영사관이 발표한 19명보다 5명이 많은 24명이었다.

월드코리아에 따르면 선관위는 미주내 10개 재외공관에서 총 1,514명이 모의 선거에

등록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각 공관에 문의해 집계한 결과, 실제 등록인 수는 770명 뿐이었다고 미주 한인 언론을 인용해 밝혔다.

실제로 전세계 167개 공관을 통해 등록된 재외선거 등록자 8,450명 중 2,101명이 선관위 직원들이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진관 담당 영사는 “오 영사는 이같은 통계 오차에 관해 “(이 5명은) 서울 선관위가 모의 재외선거 연습 차원에서 신청한 것

으로 실제 투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모의 선거를 통해 한인들에게 참정권 행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년 4월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 모의 재외선거 실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 오 영사의 말이다.

오 영사는 “재외선거는 법정사무로 절차

## 영주권 취득기간 단축됐다

영주권 신청자 수 해마다 감소세  
취업영주권 신청 적체도 급감  
노동부 노동허가서 발급은 어려워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영주권 지원자들이 해마다 감소하고 영주권 지원자 중 두번째로 많은 취업영주권 적체 수가 대폭 줄어들어 따라 영주권 취득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자들은 2011년 이래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은 총 1,062,040명이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3에는 990,553명으로 약 7만여명이 줄어들었다.

영주권 지원자 수의 감소는 자연스럽게 영주권 쿼타의 증대로 연결된다. 그만큼 영주권 수속도 빨라진다는 의미다. 최근 영주권을 취득한 쿼타에 거주하는 정 씨의 경우 단 3개월만에 영주권을 취득했다.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 걸리는 평균 기간 6개월 보다 무려 절반이 더 앞당겨진 기간이다.

한편 취업이민 영주권 적체수도 점차로 적어지고

▶▶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할인항공권 전문

From **\$970**

보스톤-인천 왕복항공권 비수기 특가

ONLY 1 STOP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여행일정, 이용항공사, 실시간 예약상황 등에 따라 항공권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IACE TRAVEL**  
1-866-619-4223 (Toll Free) / 617-424-8956

한국어 상담 월~금 12pm~9pm  
예약센터 영어, 일어 only 1-877-489-4223 (24/7)  
이메일 info@iace-korea.com 온라인 예약 www.iace-korea.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iacetravelkorea  
카톡상담아이디: IACEKOREA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오누리 변호사**  
June N. Oh, Esq.  
부동산 전문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Sonja B. Selami

Tel: 508.424.0600  
Dir: 508.665.1544  
Fax: 508.665.1537  
june@selamilaw.com  
7 Muzzey St. Lexington, MA 02421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 버클리 뮤지션 리나 조 트리오 무료 공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세 명의 버클리 인터네셔널 뮤지션인 재즈트리오 그룹, 리나 조 트리오(Rina Jo Trio)의 연주가 오는 11일 토요일 보스톤한인교회의 국내 선교 일환인 ‘오아시스 카페 뮤직 나잇’에서 열린다.

이 재즈 트리오 멤버로는 민진 리나 조(한국, 피아니스트), 마르셀로(브라질, 베이스스트), 그리고 켈빈(인도네시아, 드러머)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그룹의 연주는 여러 문화의 영향을 받아 독특하고 다양한 모습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는 케이트 예술러(시카고, 보컬리스트)의 피쳐링이 포함되어 그녀의 매력적인 목소리로 인해 한층 더 관능적이고 달콤한 음악이 연주될 예정이다.

리나 조 트리오는 미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는 유명한 재즈곡인 “Bewitched”와

“You are so beautiful” 과 “My way”를 들려줄 예정이며, 클래식 재즈곡들인 “So what” (Miles Davis) 과 “Billie’s bounce” (Charlie Parker) 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피아니스트인 리나(조민진)의 자작곡들인 “Heaven” 과 “Not yet” 도 연주할 계획이다.

이날 ‘오아시스 카페 뮤직 나잇’의 재즈트리오 그룹의 공연은 무료입장(기부금권장)이며 자세한 문의는 보스톤한인교회(617-739-2663 또는 ecckcb@gmail.com)로 하면 된다. 공연에 대한 기타 정보는 해당 홈페이지(ecckcb.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행사일정**  
 일시: 7월 11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 보스톤한인교회 커뮤니티홀 (32 Harvard Street, Brookline, MA 02445)  
 bostonkorean@hotmail.com

## 재외선거 총 등록자 8,450명, 선관위 등록자 2천명 넘어

▶▶1면에 이어서

가 굉장히 까다롭다”며 “본게임(내년 총선 재외선거)에서 실수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이번 모의 선거의 제1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모의선거에 단 3명의 한인만 참여했다는 것도 간과하기 어려운 점 중 하나이다.

오전관 담당 영사는 “평일(월요일)에 실시된 모의 선거였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한인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2.52%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한 2012년 총선과 이번 모의 재외선거를 돌아보며 일각에

서는1년이 채 남지 않은 내년 4월 총선에 대한 전망 또한 밝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재외선거 예산의 축소로 일부 대사에서는 선관위의 모든 업무를 총영사관에서 담당하게 되며 내년 총선에 대한 재외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오전관 영사는 “(보스톤 총영사관은) 내년 총선을 대비해 홍보인력을 동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번 모의 재외선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dyoo9146@bostonkorea.com

## 잇따른 영주권 절차 감소로 영주권 취득 유리해질 전망

▶▶1면에 이어서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1일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이민서비스국에 계류 중인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는 총 12만 여건으로 이었다. 이는 2013년 취업이민 영주권 적체 19만여건에 비해 35% 감소한 수치다.

연방 이민서비스국 대민 소수 민족 담당관을 맡고 있는 조앤 페레라 씨는 보스톤코리아의 이메일 질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이 같은 영주권 신청

자 수 및 취업 영주권 적체 감소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취업영주권 적체 감소는 일시적인 착시현상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연진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취업이민 영주권 적체가 감소된 까닭은 대부분 영주권 절차의 관문 중 하나인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발급이 지연되고 감소하면서 노동허가서를 취득해 영주권을 신

청하는 사람의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노동허가서를 취득한 신청자들은 더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과거 영주권 신청 후 적체로 취득이 늦어지던 것과 달리 이제는 노동부 노동허가서 취득의 적체가 늘어 큰 폭의 영주권 수속 단축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jham@bostonkorea.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펌 그리고 스킨 케어**

##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매직 스트레이튼	Magic Straightening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Threading	Threading
디지털 펌 & 셋팅 펌	Digital Perm & Setting Perm
아이롱 펌	Iron Perm
헤어 칼라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왁싱	Waxing
얼굴 마사지	Facials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중합식염 염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존 클라크 세인트 폴 성공회교회 담임목사 인터뷰

# “죄는 누구나 짓지만 결혼은 죄 아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지난달 25일, 미 대법원이 동성 결혼 합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지난 몇 주간 미 전역이 무지개색으로 뒤덮였다.

이날 판결은 대법관 9명 중 5명의 찬성표를 얻어 승인되었으며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쥐었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결정문을 통해 "결혼은 한 국가의 사회적 질서의 이정표"라며 "동성 커플이건 이성 커플이건 이러한 원칙을 존중하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동성결혼 합법화와 더불어 다양한 견해를 반영기 위해 본지는 먼저 동성애자로서 목동소재 세인트 폴 성공회교회의 담임목사를 역임하고 있는 존 클라크 목사를 인터뷰했다. 다음 호에는 이민 한인교회 목회자 중 한명을 인터뷰 할 예정이다.

다음은 클라크 목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미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A. 축하할만한 일이다. 정의가 드디어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진 듯하다. 모

든 사랑하는 연인들이, 남녀든 남남 또는 여여든, 법 아래 공평하게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어 굉장히 기쁘다.

**Q. 이번 판결이 단순히 결혼에 대한 평등의 인정일 뿐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A.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룰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존중한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지지한다. 물론 잘 모르는 사람(III-informed)도 있다. 하지만 복음에서도 말하길 예수님은 인류 모두에게 정의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 때문에 난 그들(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Q. 동성애를 성경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A.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당시에도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육체적 관계를 가졌다고 기록되고 있지만 오늘에 와서야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게이나 레즈비언일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동성애자’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낯선 개념(Alien concept)이었다.

**Q. 일부 종교인들은 동성애가 죄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어떤 것도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다.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인 관계에서 죄를 지을 수 있듯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도 육체적인 관계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 하지만 결혼은 죄가 아니다.

나는 게이이며 결혼했다. 그리고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어떤 가정만큼이나 많은 결실을 맺으며 행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

**Q. 동성애자로서 목회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

A. 2004년, 교단에서는 게이인 나를 교구의 담임 목사로 초빙했다. 물론 처음에 일부 교인은 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반대하는 교인 중에서도 나를 더 알기 원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려고 남는 사람도 있었다. 결국 그들의 생각은 바뀌었고 현재 많은 소수성애자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Q. 매사추세츠 지역에 동성애자 목사가 많은가?**



존 클라크 목사

A. 성공회 교단 내에서 말하자면 셀 수 없이 많다(웃음).

**Q. 성공회가 가장 자유적인 교단인가?**

A. 유니테리언(Unitarian) 교단과 연합그리스도(UCC) 교단은 나와 의견을 같이하진 않겠지만, 그들을 배제하면 성공회가 가장 자유적인 교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영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대인 Dain Yoo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악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마신형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 SAT Plus

Saturdays

Class	Time
SAT II MATH IIC	9:00 AM – 11:00 AM April 4 – May 30
SAT II / AP Chemistry	11:30 AM – 1:30 PM March 21 – May 30
SAT II / AP Biology	2:00 PM – 4:00 PM March 21 – May 30

## SAT Plus Summer Sched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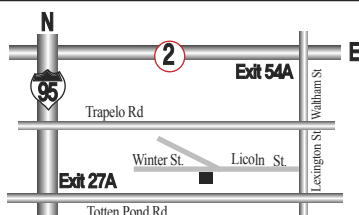
July 6 - July 24

Class	Time
SAT I (old) prep	8:00 AM – 12:00 PM Monday – Friday
SAT I (new) prep	1:00 PM – 5:00 PM Monday – Friday

August 3 - August 21

Class	Time
SAT I (old) prep	8:00 AM – 12:00 PM Monday – Friday
SAT I (new) prep	1:00 PM – 5:00 PM Monday – 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 7080 콘서트 3백여명 몰려 성황

한인회 행사, 대규모 관객 운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보스톤한인회(회장 김경원)가 주최한 7080 콘서트에 3백여명의 한인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지난 6월 28일 일요일 우건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7080 콘서트에는 사랑과 평화의 최이철 씨와 영사운드의 유영춘, 건아들의 이창환, 템페스트의 장계현, 디페밀리의 이천행 씨가 참석해 추억의 무대를 펼치며 강당을 뜨겁게 달궜다.

다소 경직되고 어색하기도 했던 관객들의 초반의 분위기는 흥겨운 비트와 초청 가수들의 농담에 금새 풀려졌고 한인들은 무대를 향해 “자주 오세요”, “앵콜” 등을 외치며 콘서트를 즐겼다.

김경원 회장은 본격적인 공연에 앞서 “다함께 신나게 즐겨보자”는 간단명료한 인사말을 전하고 한인회 슬로건 ‘함께 걷고, 함께 말하고, 함께 나누는 보스톤 한인회’를 가수들과 외치며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

사랑과 평화의 최이철 씨의 ‘한동안 뜸했었지’로 막을 올린 이날 공연



지난달 28일 한인회 주최의 7080 콘서트에 참석한 한인들이 가수들의 무대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은 영사운드 유영춘 씨의 ‘등불’, ‘달무리’ 등의 히트곡으로 이어졌다. 건아들의 이창환 씨는 ‘구름과 나’, ‘연’ 등 당시 대학가요제의 히트곡 메들리를 불러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잊게해 주오’로 무대를 연 템페스트 장계현 씨는 ‘나의 20년’ 등의 히트곡들을 연이어 불렀다.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디페밀리의 이천행 씨는 ‘또 만나요’를 부르며 모두의 아쉬움 속에 공연을 마무리했다.

이날 콘서트에 참석한 김병국 한미 예술협회 회장은 “7080 콘서트를 준비하고 일사불란하게 콘서트를 잘 마

친 김경원 회장과 한인회 임원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며 “한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반가웠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보다 많은 한인들이 호응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 한인도 있었다.

“한인회에서 한국 가수들을 초청해 콘서트를 연 것이 이례적”이라는 한인 미나 파플록 씨는 “이런 돌도 없는 소중한 기회에 더욱 많은 한인들이 참석하지 못해 너무 아쉽고 이번 공연을 계기로 한인들이 더욱 단합되는 한인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dyoo9146@bostonkorea.com

## 재미과기협 한미학술대회 개최

기조연설자 이상목 서울대 교수, 강성모 카이스트 총장 초청 각종 포럼 및 대규모 채용박람회 열려

특히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서상기, 홍문종, 박인숙, 민병주, 강길부 의원 등이 이날 행사에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부섭)가 공동 주최하는 이날 행사에는 천 여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주최 측은 밝혔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재미과기협 웹사이트(ukc.kse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김영수 회장) 주최의 한미과학기술산업 학술대회가 오는 29일부터 8월1일까지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위치한 하얏트 리젠시 애틀랜타(Hyatt Regency)에서 개최된다.

‘섬김의 마음으로 최고를 추구한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올해가 17회째로 컴퓨터 정보, 전기전자, 바이오, 의료, 제약 등 12개 분야의 심포지엄과 대규모 채용박람회, 포스터 대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될 예정이다.

기조연설자로는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고도 불리는 이상목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와 강성모 카이스트 총장, 에일린 폴락 미시간대 교수, 박찬모 전 포스텍 총장 등이 참석한다.

한편, 44대 신입회장으로 선출된 김영수 신입회장은 “이민 1세대 회원들이 당시 낙후했던 모국 과학기술산업의 기틀을 닦는데 기여했다면, 지금은 차세대 과학기술 리더들이 한미간의 협력의 고리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화합된 모습으로 더욱 견고한 협회를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7월 29일~8월 1일  
장소: 하얏트 리젠시 애틀랜타 (265 Peach St. NE, Atlanta, GA 30303)

bostonkorean@hotmail.com

##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단체예약  
주문음식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 4인 4색 현대미술 전시회 '기억의 4가지 해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터프츠 미대 출신의 4명의 한인 작가들이 '기억'이라는 소재를 현대미술로 재해석했다.

'기억의 4가지 해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이현영, 김사울, 정동진, 장지는 작가가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기억'이라는 소재를 사용해 개인적인 경험이나 꿈 속의 한 장면, 국제적인 이슈 등을 현대미술 기법으로 입체감있게 표현했다.

갤러리 창에 커다랗게 걸려 있는 작품은 에블라 고아들을 그려낸 정동진 작가의 수채화 작품 '나를 원하나요(Do You Want Me)'이다. 지나가던 미국인들이 관심있게 쳐다 보기도 한다.

정 작가는 "수치스러운 병이라고 취급당했던 에블라로 인해 고아가 된 아이들이 고아원에 누군가 방문할 때마다 "나를 원하나요"라고 말했다는 기사를 읽고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고 전했다. 슬픈 감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수채화를 선택했다고.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캔버스에 담아내는 정동진 작가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에블라 발병으로 인해 고아가 된 아이들, 아르메니아 대학살, 최근 ISIS의 만행을 다양

한 기법을 사용해 그려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기억하므로 미래에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는 정 작가의 바람이 작품에 담겨 있는 듯하다.

한편, '변화(Variance)'의 키워드로 사진 작품을 선보이는 이현영 작가는 시간과 계절에 따라 변하는 기억의 흐름을 콜라주 기법으로 표현해냈다.

일본에 거주했던 경험을 털어놓은 이 작가는 "가장 좋아했던 풍경이 기억 속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대형 카메라, 프로젝터, 플라스틱 꽃 등의 다양한 도구로 아날로그와 디지털 기법을 함께 사용했다"고 전했다. 시간과 계절에 따라 변하는 기억의 흐름을 그대로 콜라주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

스스로를 '예민한 사람'이라고 부른 김사울 작가는 웹 수면 상태로 자면서 늘 꿈을 꾸다고 한다. "환경적인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김 작가는 아침에 잠에서 깬 때 정확하게 기억하는 꿈 속 장면들을 녹음, 스케치한다. 말 그대로 무의식의 세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인 것이다.

김사울 작가는 "재미있는 일기장을 구경하는 느낌으로 감상해주길 바란다"며 많은 한인들의 방문을



전시회 '기억에 대한 4가지 해석'이 오는 11일까지 브루클라인 소재 ECC 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왼쪽부터 이현영, 김사울, 정동진 작가

권장했다. 종이접기와 드로잉 기법을 이용한 작품을 전시하는 장지는 작가는 "우리가 꿈꾸는 소망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에 그리는 것들을 상상하며 종이를 접는다"고 전했다. 종이를 접는 과정에서 생기는 선과 연결 문은 손의 자국, 완성품을 펼칠 때 보여지는 과정을 작품에 담았다.

'기억의 4가지 해석' 전시회는 브루클라인 소재 보스톤한인교회 ECC 갤러리에서 오는 11일 토요일

까지 열리며 갤러리 방문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전시회에 관한 문의는 이현영 작가(lee.clarahy@gmail.com)에게 하면 된다.

**전시회 일정**  
 일시: 2015년 7월 6일~11일 오전 11시~오후 5시  
 장소: 보스톤한인교회 ECC 갤러리(32 Harvard Street, Brookline, MA 02445)  
 dyoo9146@bostonkorea.com

## 보스톤 새생활센터 약식동원 메디푸드 건강세미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새생활센터(대표 송연호)가 오는 10일, 11일 약식동원 메디푸드 건강세미나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세미나의 강사로는 약학박사인 이숙연 교수가 건강 상담을 함께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현재 한국약식동원연구소장이며 슬로푸드문화원 이사를 맡고 있고 삼육대 명예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의 원인을 밝히고 약식동원 메디푸드로 과학적인 건강유지 비결과 특별한 건강 만들기 음식 레시피를 소개 및 시연한다.

건강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스톤 새생활센터 송연호 대표 (781-279-3270 / 317-374-4786)에게 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7월 10일 오후 7시30분~9시, 11일 오전 10시 30분~12시  
 장소: Boston Korean SDA Church 4 Spring Street, Stoneham, MA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 보스톤 한여름밤의 무료 야외 영화상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몇 번을 봐도 재미있는 가족 영화를 올 여름 보스톤 야외 극장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프로즌(Frozen)이나 빅 히어로 식스(Big Hero 6)와 같은 '나름' 최신작부터 디즈니 신데렐라, E.T., 인디애나 존스 등의 고전 명작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반드시 담요나 돛자리를 챙겨가야 하며, 주전부리를 함께 가져가면 더욱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듯하다. 해가 지는 선선한 보스톤의 여름 밤, 온 가족이 함께 무료 야외 영화를 즐기는 것은 어떨까.

▶에스플라나드 해치셀

독립기념일 축제가 열린 에스플라나드의 대형 무대 해치셀에서도 매주 금요일 저녁 영화 상영을 갖는다. 'E.T.' 나 '인디애나 존스' 등 누구나 사랑하는 명작부터 잡지는 숲 속의 공주를 현대화한 '말레피센트(Maleficent)' 등의 최근 작품까지 다양한 영화가 상영을 앞두고 있다. 명당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일찍부터 시작되니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는 것이 권장된다. 대중교

통 이용시 레드라인 MGH역이나 그린라인 알링턴 역에서 내려 도보로 10분 가량 걸어야 한다.

- 7/10: Paddington
- 7/17: Big Hero 6
- 7/24: E.T.
- 7/31: Indiana Jones and the Kingdom of the Crystal Skull
- 8/7: Disney's Cinderella

- 8/14: Alexander and the Terrible, Horrible, No Good, Very Bad Day
- 8/21: Guardians of the Galaxy
- 8/28: Maleficent



▶프루덴셜 센터

빌딩 숲속의 작은 정원이라고도 불리는 프루덴셜 센터의 사우스 가든에서 오는 11일부터 8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무료 영화상영을 시작한다. 상영 일정표에는 '프로즌'이나 '라따뚜이', '디스피커블 미', '토이스토리' 등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영화가 가득하다. 쇼핑에 지쳐있는 아이들을 위해 이색적인 야외 공간에서 영화 한편 보여주는 것도 좋을 듯하다.

저녁 6시 이후에는 각종 이벤트가 함께 열리기도 하며 영화 상영 전에는 기프트 카드나 피크닉 담요가 증정된다. 우천시 상영 일정은 그 다음주 수요일, 같은 장소다.

사우스 가든(South Garden)은 치즈케익 팩토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보이는 반스앤노블(Barnes & Nobles) 서점의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 7/11: The Boxtrolls
- 7/18: Frozen
- 7/25: Big Hero 6
- 8/1: UP
- 8/8: Paddington
- 8/15: Ratatouille
- 8/22: Toy Story
- 8/29: Despicable Me



▶어셈블리 로우

서머빌에 위치한 쇼핑광장 어셈블리 로우(Assembly Row)에서도 매주 토요일 무료 야외 영화 상영을 제공한다. 상영되는 영화 목록은 에스플라나드 해치셀의 것과 같다. 백스터 공원(Baxter Park)에서 해질녘 무렵 상영이 시작된다.

다.

- 7/11: Paddington
- 7/18: Big Hero 6
- 7/25: E.T.
- 8/1: Indiana Jones and the Kingdom of the Crystal Skull
- 8/8: Disney's Cinderella
- 8/15: Alexander and the Terrible, Horrible, No Good, Very Bad Day
- 8/22: Guardians of the Galaxy
- 8/29: Maleficent



▶크리스토퍼 컬럼버스 파크

노스 앤드에 위치한 크리스토퍼 컬럼버스 파크에서 오는 12일 일요일부터 6주간 무료 야외영화 상영을 실시한다. 마찬가지로 영화는 해질녘 상영이 시작될 예정이다.

- 7/12: Driving Miss Daisy
  - 7/19: Toy Story
  - 7/26: Shrek 2
  - 8/2: Indiana Jones and the Temple of Doom
  - 8/9: Money Ball
  - 8/16: Sabrina
- dyoo9146@bostonkorea.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nibost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고려대 교우회가 지난 6월 27일 토요일 이동익 교우 자택에서 정기 모임을 가졌다

## 뉴잉글랜드 고려대 교우회 성황리에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고려대학교 뉴잉글랜드 교우회(회장 이태호)는 지난 6월 27일 토요일 이동익(건축 73) 교우 자택에서 정기 모임을 가졌다.

모임에 참석한 30여명의 교우는 모처럼 만난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고 새로 보스톤에 온 교우들을 환영하며 즐거운 시간을 나눴다.

총회에서는 2015-16년도 뉴잉글랜드 고려대학교 교우회를 이끌어갈 회장단으로 이태호(생물 87) 회장과 김명근(건축 91) 부회장이 선임되었다. 또한, 임원단으로 전인탁(재료 03), 이종은(환경보건, 07) 총무, 박가영(화학 96) 회계, 이대식(경영 96) 감사가 선출되었고 고문단으로는 한영상(법학 69), 이동익(건축 73), 진태원(축산 75), 한선우(원에 78), 한문수(경제

83) 교우가 선임되었다. 이태호 교우회장은 인사말에서 참석한 교우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고대 교우들의 모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교우회가 후원한 보스톤 지역 한인행사 소식을 전하며 앞으로도 많은 교우의 협조와 참여를 부탁했다.

이동익(건축 73) 교우는 “지난 고대 교우회를 추억하며 더욱 발전되는 모임을 만들어가자” 고 다짐했다.

고문 및 현재 대외 협력을 맡은 한문수(경제 83) 교우는 지난 6월 6일에 개최된 고연전 골프대회를 소개했으며 이날 자리를 마련한 이동익 교우와 임원진에 감사를 표했다.

1년간 보스톤에서의 연수를 마치고 떠나게 된 정영서(법학 01) 교우는 “짧은 보스톤 생활이었지만 교우들

의 따뜻한 정을 마음에 간직하고 떠난다”며 “우리 교우회가 자랑스럽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참석한 교우들의 간단한 소개와 인사말, 근황 나눔이 진행되었고 행사의 끝으로 교우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전인탁(재료 03) 교우의 선창으로 모든 교우들이 교가를 제창하며 마무리되었다.

다음 모임은 8월 케이프코드에서 갖는 아우회로 개최된다.

고대 교우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이태호 회장(617-780-2999, tlee08-13@hotmail.com) 또는 김명근 부회장(617-501-2587, myoung@gmail.com), 전인탁 임원(857-998-3318, itjeon@mit.edu)에게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로드아일랜드 한인회관 건립 기금마련 골프대회가 오는 9월 7일 개최될 예정이다

## RI 한인회관 건립모금 골프대회 주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회장 이동문)는 오는 9월 7일 노동절에 한인회관 건립 모금을 위한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로드 아일랜드 소재 리치몬드 컨트리 클럽(Richmond Country Club)에서 개최되는 이날 대회의 참가비는 \$100이다. 참가비에는 골프 코스 및 카트 이용료와 간식, 저녁 식사비, 상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회 당일, 접수 시작은 오전 11시로 샷건(Shot Gun)은 12시에 시작된다.

주최 측은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골프도 즐기고 친목을 다지며 한인회관 건축 모금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최 측은 현재 개인, 그룹, 홀 스폰서를 접수 중에 있다. 홀 스폰서의 경우 1구좌당 \$100 이상에 가능하며 각 홀에 스폰서 소속과 이름이 기재된다.

로드아일랜드 한인회관 건립모금 골프대회에 관한 자세한 정보나 신청문의는 조봉섭 로드아일랜드 건립건물 위원장(401-632-7401 또는 bcho@uri.edu)에게 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9월 7일 월요일(오전 12시 샷건 예정)

장소: 리치몬드 컨트리 클럽(74 Sandy Pond Rd, Richmond, RI 02832)

dyoo9146@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민/형사 소송  
이민법

전화: (781)712-1706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 2016년도 의료보험료 인상 가능성 높아

미 전국 보험회사 20~40% 인상 추진  
매사추세츠 보험부, 추세 따른  
보험료 인상 암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미 보험사들이 전국적으로 2016년 보험료의 인상을 최대 40% 이상까지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매사추세츠 보험부도 매사추세츠의 보험료가 인상할 것이라고 암시했다.

지난 3일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 전국 대형보험사 연합인 BCBS(Blue Cross Blue Shield)는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건강상태가 예상보다 좋지 않다”며 소비자들의 요구 충족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매사추세츠 보험부(DOI)의 피트 폴러튼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는 “새로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고가의 의료

기기와 약품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치료 비용이 보험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평등한 보험사 선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폴러튼 디렉터는 만성 C형 간염을 예로 들며 이같은 만성질환의 치료를 위해서는 강력하지만 값도 그만큼 비싼 의료기기와 처방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일 접수된 2016년 매사추세츠 주 보험료에 대해서는 “8월 15일까지 검토할 예정이며 이 기간에는 보험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매사추세츠 주의 보험거래소인 헬스커넥터(HealthConnector)의 제이슨 레퍼츠 미디어 디렉터는 “보험료는 매사추세츠 보험부에서 정하는 것으로 헬스커넥터는 합리적인 가격에 최대한 많은 소비자들이 보험을 구매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답했다.

이는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보험 플랜 중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사의 플랜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요금 인상의 충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BCBS가 각 주에서 추진하는 보험료 인상폭은 일리노이 23%, 노스캐롤라이나 25%, 오클라호마 31%, 테네시 36%, 미네소타 54% 등이다.

실제로 오리건 주에서는 보험료 인상이 허가되어 해당 주의 가장 큰 보험사인 모다 헬스 플랜(Moda Health Plan)과 두 번째로 큰 라이프와이즈(LifeWise)가 내년부터 각각 보험료를 25%, 33% 인상하게 된다.

한편, 뉴멕시코에서는 3만 3천여명의 보험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대형보험사가 51%의 인상폭을 제기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는 시민들의 반격을 사기도 했다.

dyoo9146@bostonkorea.com



지난해 리비어 비치 모래조각 축제의 입상작으로 당시 개봉했던 애니메이션 영화 '리오 2'를 조각했다

## 리비어 비치, 모래 조각 축제 열린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리비어 비치에서 개최되는 제 12회 모래 조각 축제 (Revere Beach International Sand Sculpting Festival)가 오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3일간 열린다.

매년 70만명이 모여드는 리비어 모래 조각 축제에는 세계의 유명한 모래 조각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이 떡 벌어지는 모래 작품들을 선보인다. 올해는 모래 조각가 20여명이 개인이나 2인조로 팀을 이뤄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모래 조각가들은 정해진 규격의 공간 안에서 10톤의 모래를 사용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부터 실제로 튀어나와 움직일 듯한 인물 조각상 등의 작품들을 탄생시킨다.

3일간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모래 조각 외에도 아이들을 위한 모래 조각 워크샵, 각종 라이브 공연, 불꽃놀이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허기를 달랠 수 있는 다양한 푸드트럭도 출동할 예정으로 불거리와 먹거리가 풍성하다.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는 리비어 모래 조각 축제는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요일은 저녁 8시까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대중교통으로 오는 경우 블루라인의 윈터랜드 역이나 리비어 비치 역에서 내리면 된다. 직접 운전해서 오는 경우 아침 일찍 도착할 것이 권장되며 윈터랜드 역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수 있다. 주차료는 \$5이다.

dyoo9146@bostonkorea.com

## 제6회 국궁 및 양궁 시연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미 청소년 프로그램(대표 진태원, KAYP)이 오는 8월 1일과 2일 뉴햄프셔 소재 그레이트리 아처리(Greattree Archery)에서 국궁 및 양궁 시연회를 개최한다.

진태원 KAYP 대표는 “시위를 떠난 화살을 145 미터 떨어진 과녁에 명중시키는 양궁이나 국궁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니다”라며 이번 기회에 많은 한인들이 참여할 것을 권장했다.

1일 토요일과 2일 일요일 양일에 걸쳐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오전 10시와 오후 1시, 오후 4시에 각각 두 시간

씩 진행된다.

국궁 지도는 박노중 그레이트리 아처리 대표가 담당하며, 양궁은 마크 올슨 코치와 한국 양궁 국가대표 선수였던 김한성 코치가 지도할 예정이다.

양궁이나 국궁 장비는 모두 제공되며 개인 장비가 있는 참가자의 경우 본인의 장비를 가져와도 무관하다. 참가비는 1인당 \$10로 11살 이하의 무료다.

관심있는 사람은 진태원 KAYP 대표 (603-205-6679 또는 captain@kayp.org)에게 문의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행사의 수익금은 KAYP 국궁/양궁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8월 1~2일 오전 10시, 오후 1시, 4시 각각 2시간씩  
장소: 5% Hooksett Road, Auburn NH 03106  
bostonkorean@hotmail.com

**오바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 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817-787-0789 www.acupark.com  
60 Lo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 MFA 기모노 입어보기 행사 갑자기 변경한 이유

제국주의와 제포니즘을 조롱한 모네의 그림 앞에서 기모노 입기 행사는 인종 차별, 논란 인터넷에서 뜨거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미술관(Museum of Fine Arts)이 모네의 '제포네이즈' 그림 전시와 기모노 입어보기 체험 행사를 겸한 <기모노 데이> 행사를 축소시켰다.

보스톤 미술관(MFA)은 7일 화요일 당초 7월 한 달 동안 진행하려던 기획 전시전 "기모노 웨스데이" 행사를 급거 변경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부 아시아인 그룹이 아시아를 정형화하는 차별적 행사라며 강력히 반발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몇 십년간 같은 행사에서 이 같은 반대를 경험하지 못했던 보스톤 미술관은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이번 여름 휴가를 맞아 기획했다 된 서리를 맞은 <기모노 웨스데이>는 클라로드 모네가 자신의 아내가 기모노 입은 모습을 그린 그림 "라 제포네이즈"를 전시하며 보스톤 미술관 측이 마련한 기모노를 입고 모네의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는 행사였다.

그러나 일부 아시아인 그룹이 이 같은 보스톤 미술관의 행사가 아시아 문화를 핵심적으로 인간의 문화가 아닌 이색적인 것으로 틀에 박힌 인종차별적 생각을 영구화하는 행사라고 항의하면서 압초에 부딪혔다.

지난 6월 24일 말콤 로저스 박물관장 퇴임식 행사에서 아주 소수의 항의자들이 "이 행사는 (예술행사의)전용, 이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보드를 들고 항의했으며 로저스 퇴임 박물관장은 보스톤 글로브에 "작은 논란은 결코 (박물관의 전시에) 해를 끼치지 못

한다"며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시위대는 7월 1일 다시 박물관을 방문했다. 시위대의 한 명인 크리스티나 왕(29) 씨는 보스톤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미국내 아시아인 아메리칸은 지금껏 잘못 인식되거나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다. 아시아들은 쿵후, 아주 이색적이거나(exoticized), 신비롭거나(mystical), 무자비하고 사악한 힘을 행사하는 글래머 여성(dragon ladies), 윤락녀이거나 또는 당신이 현재 갖고 있는 관념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술관의 케이티 케셀 부박물관장은 "이 같은 반응에 완전히 놀랐다. 우리는 이것이 다른 문화와 다른 시간대에 대한 교육 기회의 한 차원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보스톤 미술관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방문자들의 감정을 건드린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히고 이벤트가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기모노를 만질 수는 있고 이에 대한 교육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입는 행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물관은 당초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기모노 행사를 계속 진행키로 했다. 한 항의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보스톤 미술관 내부 지침에 따르면 "우리는 결코 인종차별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관람객들이 어떻게 일본의 예술이 모네 같은 인상주의 화가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사인보드를 들고 시위에 참여한 사람은 2명 밖에 되지 않았지만 온라인 페이스북과 텀블러 반대

계정이 만들어지면서 점차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갔다. 특히 보스톤 미술관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수많은 비난이 쇄도했다.

한 일본 여성 준코 고다씨는 "감상(appreciation)과 전용(appropriation)에는 차이가 있다. 과거 보스톤 거주자이자 보스톤 미술관을 애용가로서 나는 박물관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모네의 1876년 작인 이 그림은 불타는 듯한 빨간색 기모노를 입은 아내 카밀을 그린 것이다. 이 그림은 팬들에게 둘러싸여 금발 가발을 뒤집어 써 의도적으로 자신이 유럽 백인임을 강조하는 그림이다. 이 그림은 1870년대 파리인들에게 훗날 지니가는 일본 물건에 대한 열광을 비꼬는 그림이었다.

미술 역사가들은 모네가 자포니즘(japonisme)으로 알려진 일본적인 취향 및 일본풍을 즐기고 선호하는 현상과 자신의 동시대인들을 풍자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학자들은 19세기 유럽인들의 아시아 특히 일본에 대한 환상적인 현상을 약간 죄악시키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현상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칭하며 이는 제국주의적 입장에서 서양 문화가 아닌 문화를 일종의 신비주의 특징으로 간주하고 알 수 없는 이국적 특징과 약간의 비인간적인 느낌을 띠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시위대의 주장은 일관성이 있지만 모든 방문자의 고개를 끄덕여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보스톤글로브가 인터뷰한 한 백인 방문자는 이들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의 말은 모두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것이다. 아마도 좀더 맥락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보스톤 미술관에 전시된 기모노는 그림에 입고 있는 기모노처럼 복제해 만든 것으로 일본 국영방송인 NHK가 제공한 것이다. 이는 최근 "동양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모네의 '라 제포네이즈'를 일본의 도쿄, 교토 그리고 나고야의 MFA자매 박물관에서 순회 전시하며 입어보기 행사를 위해 만들어진 기모노다.

보스톤 미술관 케셀 부관은 "일본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 따라서 보스톤에서도 이 같은 경험의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기모노를 보고, 입어보고 느껴보는 것을 고마워할 것이다. 또한 기모노를 입고 당시 남편이 자신을 그리는 파리 여성의 감정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시완과 왕 씨는 그러나 이 행사가 미국에서는 좀더 미묘하고 복잡한 상황이 된다고 밝혔다. 아시아는 때로 무시당하는 소수민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이벤트는 문화적 전용이라고 주장한다. 시완은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백인들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흑인으로 분장한 백인 연예인들이 노래와 춤을 선보이는 쇼인 민스트렐(minstrel)은 거의 사라졌다. 미국내 프로풋볼 팀인 워싱턴 레드스킨도 인디언에 대한 틀에 박힌 사고를 조장한다는 의미에서 인종차별적 논란이 되어왔다. 할로윈 복장에서도 여타 인종의 복장을 하는 것은 인종차별적 요소로 지적된다. 다인종이 결합되어 있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의 관념이 얼마나 미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hsb@bostonkorea.com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http://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메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http://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http://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간	그룹 지도	개인 지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mailto:humanresource@bosec.com) 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 여성 고소득 계층에서 헤로인 중독 급증

연방 보고서 발표, 10년새 사망자 4배  
헤로인 중독 남녀, 소득 가리지 않아

(플레인빌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최근 연방 정부에서 발표한 헤로인 중독 인구의 특징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약 중독자의 모습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헤로인 중독이 급격히 늘고 있는 인구층은 18에서 25세 사이의 여자로서 중상위 이상의 소득을 갖고 민간 보험 가입자다.

지난 7일 미국 질병 및 통제 센터(USDCP)와 식품의약국(FDA)은 공동으로 헤로인 중독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를 보면 모든 연령과 계층에서 헤로인 중독이 급증하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헤로인으로 인한 사망자는 4배 가까이 늘어났고, 특히 2011년부터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여전히 헤로인 중독자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층은 연소득 2만 달러 이상의 남자로 보험이 없거나 저소득을 위한 공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전통적으로 마약 중독이 적었던



20세에 헤로인을 접한 레베카 카진스키는 2년 간의 재활 치료 끝에 헤로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헤로인 중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여자들의 헤로인 중독이 두 배 늘어났고, 백인들의 헤로인 중독이 두 배 이상 늘었다. 연소득 5만 달러 이상 중산층의 헤로인 중독도 극적으로 증가했다.

보스톤 글로브가 보도한 레베카 카진스키의 이야기는 헤로인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은행 부사장을 아버지로 둔 카진스키는 매사추세츠 중부의 부유한 가정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카진스키는 마약 중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환경에서 자랐지만 23세의 나이에 헤로인 중독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카진스키는 고등학교 파티에서 진통제 계통의 약물을 처음 접한 후 20세가 되었을 때 헤로인에 빠지게 되었다. 처방전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진통제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카진스키와 같은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다.

메리로 서더스 매사추세츠 보건부장관은 “연방 정부의 보고서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해주고 있다” 며 “매사추세츠 정부는 여러 단체들과 협력하여 헤로인 중독 문제와 싸우고 있다” 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 10년 사이 에너지 관련 로비 자금 두 배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지난 10년 동안 매사추세츠에서 태양열, 풍력 등을 이용한 재생 가능 에너지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회사들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에너지 사용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에너지원에 대한 논의도 많아지고, 이에 따라 로비 규모도 커지게 된 것이다.

매사추세츠 주 정부 기록에 따르면 10년 전인 2005년에는 단지 24개 에너지 회사가 120만 달러를 주 의회 로비 목적으로 사용했다. 또한 24개 회사 중에 재생 가능 에너지 회사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14년 기록을 보면 주

의회에 로비를 한 에너지 회사는 정확히 두 배로 늘었고, 액수도 240만 달러 가까이 사용되었다. 특히 240만 달러의 로비 자금 중 100만 달러 이상이 태양열, 풍력, 수력 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 회사에서 나온 자금이다.

연간 수천만 달러를 주 의회 로비에 사용하는 의료보험 회사들에 비하면 에너지 회사들의 로비 액수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로비 액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매사추세츠 주민들, 회사, 의회의 관심이 점점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jsi@bostonkorea.com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정관장 홍삼의 엄격한 제품 관리 기준은 의약품 제조도 가능한 수준으로 한국, 일본 GMP 및 HACCP 인증을 획득할 정도로 품질면에서 우수합니다.

6년근 홍삼의 진한 피부과학 동인비

전화주문 서비스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Mix-it SUSHI WOODLE GRILL

617.547.0212  
Mixitrestaurant.com

FREE SPICY TUNA ROLL with purchase of any sushi \$30 or more

WE DELIVER lunch and dinner

Mix-it Sushi Noodle Grill | 1678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8

보스톤코리아 KOREAN GUIDE & MAP

보스톤 가이드 앤 맵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학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3번씩 재발행 예정입니다.

이제는 더 많은 미국, 중국, 아시아 고객들을 위한 것으로 풀려나고 있습니다. 지금 선택이 대한 세상은 꼭우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 여름 방학에 읽으면 좋을 어린이 추천 도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태정 기자 = 길고 지루했던 겨울을 지나 여름 방학이 시작되었다. 산과 바다로 떠나는 짐꾸러미 속에 우리 아이들에게 재미와 유익함 모두를 선사할 책 몇 권 함께 챙겨 가는 건 어떨까? 영어 능력 향상은 덤으로 따라온다. 보스톤 지역 7개 도서관 사서들이 보스톤 글로브지에 추천한 어린이 도서 목록을 실어본다.

**[유아-초등 저학년]**

**Red: A Crayon's Story /**

Michael Hall 글, 그림

실수로 “빨간색 크레용” 라벨이 붙여진 파란색 크레용의 진정한 자아 찾기 여행.

**Swimming, Swimming /**

Gary Clement 글, 그림

무더운 한 여름, 친구들과 첨벙첨벙 물놀이 하던 추억을 떠오르게 해주는 그림책.

**Meet the Dullards /**

Sara Pennypacker 글, Daniel Salmieri 그림



심심함이 모토인 매일매일이 심심한 가족 Dullard family의 삼남매, Blanda, Borely 그리고 Little Dud가 떠나는 지루한 일상에서의 작은 일탈을 유머러스한 표현과 코믹한 그림으로

로 엮어낸 책. 겉표지 큼지막하게 적힌 Extra Boring Edition(완전 지루한 책!)에서 이미 작가의 넘치는 위트를 엿볼 수 있다.

**Take Me Out to the Yaku /** Aaron Mesho 글, 그림

미국과 일본에 가족을 둔 한 소년이 할아버지와 함께 양국에서 야구게임을 관람하며 서로의 문화를 비교, 체험하는 이야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야구를 매개체로 컬러풀한 그림과 함께 흥미로운 비교가 시작된다.

**A Fine Dessert: Four Centuries, Four Families, One Delicious Treat /** Emily Jenkins 글, Sophie Blackall 그림

1710년 영국, Lyme 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소녀가 엄마와 함께 Blackberry Fool이라는 디저트를 만들고 있다. 100년 후인 1810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1910년 보스톤, 그리고 현재 샌디에고까지, 400년에 걸쳐 각기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 살고 있는 네 가족이 어떻게 Blackberry Fool을 만드는지 보여준다. 가족의 일상이나 기술, 문화의 시대적 변화도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했다.

**[초등 학생]**

**The Terrible Two /** Mac Barnett, Jory John 글, Kevin Cornell 그림

교내 최고의 장난꾸러기로 명성을 날리던 Miles Murphy는 구경거리라고는 들판의 젖소들 밖에 없는 파분한 Yawnee Vally 라는 마을로 전학을 가게 된다. 내심 Yawnee Vally 최고의 장난꾸러기 타이틀은 따 놓은 당상이라 생각했으나, 그곳에서 Niles

Sparks라는 의외의 복병을 만나게 되는데. “마을 최고의 장난꾸러기” 타이틀을 노리는 두 소년의 유쾌한 이야기가 익살스러운 그림과 함께 펼쳐진다. 전세계 엄마와 어린이 독자를 사로잡았던 히트작, Jeff Kinney의 ” Diary of a Wimpy Kid” 를 재미있게 읽었던 분들께 특히 추천한다.

**El Deafo /** Cece Bell 글, 그림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자전적 Graphic novel(만화)로 올해 Newbery Honor를 수상하였다.

삼남매의 막내로 평범한 유년기를 보내던 Cece는 네살 때 뇌수막염을 앓은 뒤 청력을 잃게 된다. 가슴에 항상 커다란 hearing aid 를 달고 학교 생활을 해야 했던 Cece에게 친구 사귀기란 매 학년마다 쉽지 않은 과제였다. 작가는 자신의 유년시절 이야기를 담담하지만 파스하게, 섬세하면서도 유머러스하게 담아내고 있다.

**Dare the Wind: The Record-breaking Voyage of Eleanor Prentiss and the Flying Cloud /** Tracey Fern 글, Emily Arnold McCully 그림

1851년, 뉴욕-샌프란시스코 세계 항해 신기록을 세웠던 Flying Cloud 호의 선원이자 항해사였던 어걸 Ellen Prentiss의 이야기.

**Untamed: The Wild Life of Jane Goodall /** Anita Silvey 지음

탄자니아에서 40년이 넘는 기간을 침팬지와 함께 한 세계적인 침팬지 연구가 Jane Goodall. 그녀가 온 생을 바친 침팬지와 그녀의 삶을 다양한 사진 및 그림으로 함께 엮었다. 자연과 모험을 동경하는 아이를 둔 부모라면 한 번쯤 함께 읽어 보면 좋을 책.

**Masterminds /** Gordon Korman 지음

범죄도 없고 거짓말 하는 아이도 없는, 모든것이 완벽한 마을 Serenity. 그곳에 살고 있는 Eli는 어느날 우연히 자신의 마을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을 알게 되는데. 모험과 미스터리 모두가 담겨 있는 책. 결코 지루하지 않다. 아직 독서에 취미를 붙이지 못한 어린이 독자에게 특히 추천할 만하다.

**[초등 고학년 이상]**

**Lumberjanes Vol. 1 /** Noelle Stevenson, Grace Ellis 공저, Brooke Allen 그림

다섯 소녀가 여름 캠프에 함께 참여하면서 겪게되는 흥미진진한 모험과 그들 사이의 우정을 소재로 한 만화이다. 판타지 소설이나 나을 법한 전설 속의 설인(雪人)이라든지, 세계의 눈을 가진 늑대, 거대한 매 같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만한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Cartwheeling in Thunderstorm /** Katherine Rundell 지음

아프리카의 농장에서 아무런 근심 없이 자유롭게 자란 Wilhelmina 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갑작스레 런던의 한 기숙사학교로 보내진다. 그곳에서 겪게되는 차별과 따돌림, 소외감

을 이겨내는 Wilhelmina의 용기있는 하루하루를 그렸다. 특히, 실제로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작가는 주인공의 유년 시절을 서정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The Penderwicks in Spring /** Jeanne Birdsall 지음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 Jeanne Birdsall의 Penderwicks 시리즈 네번째 책. 2005년 발표된 1편은 그해 National Book Award for Young People's Literature 를 수상하였으며, 지금까지도 모든 시리즈가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이 책의 주인공은 Penderwick 집안의 네 딸들로 네 자매는 식물학 교수인 아버지와 Hound 라는 이름의 큰 개와 함께 살고 있다. 마치 작은 아씨들을 연상케하는 각기 다른 개성의 네 자매 성장기가 감성적인 문체로 따뜻하게 펼쳐진다.

**Brown Girl Dreaming /** Jacqueline Woodson 지음

아프리카계 미국 흑인인 작가가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경험했던 어린 시절의 일들을 poem 으로 표현한 자전적 소설. 올해 Newbery Honor 수상작.

htj@bostonkorea.com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톤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와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과 각 지역에서의 각종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창업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자리에 집과 사업을 매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e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55  
Tel. (617) 869-4989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rangnim

EXCLUSIVE : ALLSTON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방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전철역, 미림, 한마루, 서울 설령탕, 한진택배 걸어서 1-2분 거리  
내년 9월까지 학생들이 계약되어 있음.  
현재 올스턴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EXCLUSIVE : ACTON

**For Sale: \$ 229,000** 3 BEDS, 2.5 BATHS, 1,594 SQ FT  
학교 좋은 ACTON 지역의 타운 하우스 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10만점에 10점 일 정도로 학교가 좋습니다. 보스톤 다운타운에서 서쪽으로 약 19.5 마일입니다.  
더 자세한 집 정보와 동영상은 아래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newstargina/209766588>

# 미 캘리포니아 주, 히스패닉 백인 인구 추월

뉴멕시코·하와이 이어  
'백인 추월' 세번째 주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1) 정이나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의 히스패닉 인구가 백인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공개된 미국 인구 조사 결과 2014년 7월 1일 기준 히스패닉 주민 수는 1499만명으로 집계됐다. 백인 인구는 총 1492만명이다.

이로써 미국 51개 주 가운데 백인 인구가 타인종에 추월당한 주는 뉴멕시코, 하와이, 캘리포니아 3곳이 됐다.

하와이에서는 아시아계가 백인을 넘어 최다 인종이며 뉴멕시코는 캘리포니아와 마찬가지로 히스패닉 인구가 우세하다.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2000년 12.5%에 이르던 미국 내 히스패닉 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휘날리는 멕시코 국기

구는 지난해 7월 기준 약 17%로 증가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실제로 지난 몇 년 간 "히스패닉 인구가 2014~2015년 사이 백인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측해왔다.

캘리포니아주 히스패닉 주민의 중위연령(median age)은 29세로 백인의 중위연령(45세)에 비해 한참 낮았

다. 캘리포니아 내 히스패닉 인구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캘리포니아 재무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히스패닉 주민 수는 2060년까지 백인 인구의 두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lchung@news1.kr

# 미 농무부 최악 조류독감 '늦장대응' 지탄...신규 매뉴얼 마련

(로이터=뉴스1) 손미혜 기자 = 미국 농무부가 최악의 조류독감(AI) 발병 사태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런 늦장대응을 보인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신규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존 클리포드 농무부 수석수익관은 7월 미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AI 감염 피해를 본 농가와 직접 소통하기 위해 각 농가에 1명의 직원을 할당하고 각 직원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수집해 전반적인 AI 대응체계를 관리하는 1명의 연방직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1명의 직원이 각 농가를 3~4주간 순환하며 AI에 대응해왔다.

클리포드 수석수익관은 "이를 통해 각 농가가 좀 더 쉽게 AI 대응책을 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 농무부는 최초의 AI 발병 당시 초기대응에 늦어 AI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니 에른스트(아이오와) 공화 상원의원은 농무부의 조류 살처분·보상 및 시설재건 승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느리다는 농가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해 총 21개주까지 확산된 사상 최악의 AI로 현재 미국

전역에서 약 4800만마리의 닭과 칠면조가 AI 감염으로 죽거나 살처분됐다.

특히 주요 계란 산지인 아이오와주와 최대 칠면조 산지인 미네소타주 등이 AI 감염 영향을 받으면서 공급부족으로 달걀 가격이 크게 올랐고 식품업계는 대체품을 구하느라 분주했다.

지난 5월 26일 농무부는 AI 신규 감염이 둔화되고 있으며 기온 상승에 힘입어 7월 AI 유행이 중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yeoulim@news1.kr



남부연합기

# 미 사우스캐롤라이나 남부연합기 철거 착수... 상원 법안 통과

(찰스턴 로이터=뉴스1) 손미혜 기자 =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상원이 남부연합기 철거법안을 6일 통과시켰다.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상원은 법률심의절차 제2독회에서 남부연합기를 철거하는 법안을 찬성 37대 반대 3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다음날 마지막 독회 표결도 무난히 통과한후 주 하원으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남부연합기를 철거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남부연합기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 노예 제도를 지지한 남부연합이 사용한 깃발로 미국 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이를 인종차별, 백인 우월주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긴다.

철거를 반대하는 이들은 남부연합기가 남북전쟁 당시 사망한 이들을 기리는 유산이라 비판했다. 지난 50여년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게양돼 온 남부연합기를 철거하는 것은 아칸소 등 미 전역에서 남부연합기 상징 퇴출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다.

리 브라이트 공화당 주 상원의원은 "찰스턴 총기난사가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겼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도 "남부의 유산을 한명의 미 치광이 때문에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번 법안을 발의한 빈센트 쉬힌 민주당 주 상원의원은 "찰스턴 총기난사는 미국에 인종주의적 분열이 잔재한다는 의미"라며 "남부연합기를 철거하는 것은 이 분열을 치유하기 위한 최소한의 발걸음"이라고 주장했다.

헤일리 주지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에도 총기난사 피해자 장례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남부연합기는 퇴출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KKK(Ku Klux Klan)는 우리 주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내 남부연합기 퇴출 움직임은 지난 17일 찰스턴 소재 흑인교회에서 총기난사를 벌여 9명을 살해한 20대 백인 우월주의자인 딜런 루프(21)가 남부연합기를 든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촉발됐다.

yeoulim@news1.kr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Wellesley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휴일없는 미용실**  
Bliss Image

봄날의 싱그러움을 찾아 드립니다

- 남녀헤어
- 피부관리
- 네일
- 제모
- 속눈썹 연장
- 바디 마사지
- 영구화장

11A Corinth St. Roslindal MA 02131  
SHOP: 617.323.0023  
CELL: 617.818.5596

Business Hours:  
Mon-Sat: 9am - 7pm  
Sun: 9am - 6pm  
미용사 구함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In Lowell

중중중은 치과  
중중중은 치아

WE MAKE SMILE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 "항공취소, 거래중단, 언론차단..." 혼돈의 하루 드러난 취약성

유나이티드항공, NYSE, WSJ 잇단 컴퓨터 오류... "해킹은 아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에서 8일 유나이티드항공부터 뉴욕증권거래소(NYSE),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르기까지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컴퓨터 오류가 발생했다.

먼저 미국 4대 항공사인 유나이티드의 전산에 장애가 발생했다. 미 동부시간으로 8일 오전 8시, 유나이티드 소속 여객기들은 미 전역의 공항에서 이착륙을 준비했지만 갑자기 운항이 일제 취소 혹은 지연됐다.

유나이티드는 항공사 전체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오류로 먹통이 되면서 여객기 운항이 일시 중단됐다고 밝혔다. 두 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시스템이 복구돼 운항이 재개됐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800편이 지연됐고 59편은 취소됐다. 유나이티드는 성명을 통해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 문제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의 네트워크 연결에 장애가 발생해 8일 오전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라우터 문제는 해결됐고 현재 정상 가동중"이라고 밝혔다.

항공기 문제가 일단락되자 금융가에 오류가 잇따라 발생했다. 오전 11시 32분, 글로벌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주식 거래가 예고도 없이 중단됐다. 운영 업체인 NYSE 그룹은 "내부의 기술적 문제로 주식 거래를 일시 정지했다"고 공지했다. 구체적 원인을 명시하지 않은 채 "해킹의 결과는 아니



8일 낮시간 대 뉴욕증권거래소 객장이 거래 중단으로 텅 비어 있다

다"라고 밝혔다.

다만 나스닥과 전자증권거래소 등 다른 거래소들은 정상으로 운영됐고, 투자자들이 이곳을 통해 거래하면서 집단적 투매나 '패닉'은 빚어지지 않았다. 거의 4시간만인 3시 10분 시스템 복구로 거래가 재개됐지만 중국 증시 폭락, 그리스 채무 위기로 가뜩이나 위축됐던 투자 심리에 기술오류까지 겹쳐 매매주문 취소가 잇따랐다. 결국 NYSE의 다우지수는 261.49(1.47%) 떨어진 1만7515.42로 마감했고 나머지 주요 지수들도 1.5% 이상 하락했다.

월가에서 가장 저명한 경제지인 WSJ의 홈페이지도 NYSE의 거래 중단 소동으로 접속이 불가했다. NYSE의 거래 중단과 거의 동시에 WSJ의 홈페이지의 메인홈 접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NYSE 거래중단과 관련한 기사나 정보를 찾기 위해 다수가 WSJ 웹사이트로 접속하면서 과부하가 걸려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거래 중단과 관련한

NYSE의 공식발표와 해킹 가능성을 배제하는 당국의 발표가 나온 이후 오후부터 WSJ 웹사이트 접속이 원활해지기 시작했다.

컴퓨터 오류가 몇 시간 격차를 두고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조직적 해킹과 배후에 대한 음모론적 추측이 잇따랐다. 하지만 당국은 개별적 오류라며 연쇄적 해킹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국토안전부는 NYSE 일시 거래 중단이나 유나이티드 소속 항공기들의 운항 지연취소에 대해 기술적 오류 이외에 외부의 악의적 활동 신호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의 해킹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일련의 기술적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회 전반의 디지털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NYT는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일반인은 물론 기업, 국가 역시 이러한 기술 오류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전했다.

kirimi99@news1.kr

## 아리아나 그란데 '도넛 소동' 물의...경찰 조사

(뉴욕 AP=연합뉴스) = 미국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22)가 한 도넛 매장에서 진열된 도넛들을 허로 찢는 영상을 올렸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미국이 싫다"고 말했다가 사과까지 하는 소동을 일으켰다.

캘리포니아주 레이크 엘시노어 경찰은 8일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공공보건 담당자들과 함께 그란데의 '도넛 영상'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연예전문매체 TMZ에 실린 이 영상은 캘리포니아의 한 도넛 가게에서 촬영된 것으로, 그란데가 한 남성과 함께 이 매장에 진열된 도넛들을 심술궂게 찢는 장면을 담고 있다.

영상에서 그란데는 도넛이 올려진 쟁반들을 보며 "이게...뭐지? 난 미국인이 싫어. 미국이 싫어"라고도 중얼거린다.

당시 매장에 있었던 직원 메이라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

솔리스는 "그란데는 자기가 찢은 도넛을 사지도 않았다. 정말 무례했다"고 말했다.

문제의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그란데는 8일 성명을 내고 "난 미국인이라는 게 몹시 자랑스럽다"며 "미국인들이 얼마나 건강을 생각 안 하고 아무거나 자유롭게 먹는지를 표현하려다 그런 말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미국 어린이 비만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에 좌절하곤 한다"며 "어쨌거나 언어 사용에서 신중치 못했던 것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란데는 또 11일로 예정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올스타 콘서트에도 참가하지 않겠다면서 "다만 이는 영상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yy@yna.co.kr



아마존은 월요일 자사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7월 15일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더 나은 할인을 제공하는 '프라임 데이' 세일을 발표했다

## "블랙 프라이데이 능가" 아마존 15일 '프라임데이'...직구족 들썩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인터넷 쇼핑물 아마존이 오는 15일(현지시간)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능가하는 '대박 할인'을 하겠다고 밝혀 한국 '직구족'(해외 인터넷 쇼핑물 등을 통해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들썩이고 있다.

아마존은 미국·오스트리아·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스페인·영국 등 8개국에서 '프라임데이' 할인행사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아마존은 프라임 데이에 블랙 프라이데이(11월의 네 번째 목요일인 미국 추수감사절의 다음 날인 금요일)보다 더 많은 상품을 할인 가격에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주요 할인 품목은 전자제품, 장난

감, 비디오 게임, 영화, 의류, 정원용품, 스포츠 용품, 아웃도어 용품 등이다.

행사는 7월 15일 단 하루만 열리며, 아마존 프라임 회원만 이를 통해 물건을 살 수 있다.

아마존은 행사가 열리는 8개국에서 연회비(미국 아마존 기준 99달러)를 내는 고객에게 고속 배송 서비스와 무료 영상·음악·저장공간 등을 제공하는 프라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무료 시험 이용을 신청한 후 30일 이내에 해지하면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마존이 이 행사를 여는 것은 쇼핑 비수기인 한여름에 충성도와 구매력이 높은 프라임 회원의 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solatido@yna.co.kr



## 미 스타벅스 '배짱'... 원두 가격인하 불구 또 가격 인상

(서울=뉴스1) 최은지 인턴기자 = 세계적인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가 미국 내 커피가격을 7일(현지시간)부터 5~20% 인상한다.

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톨(스몰·약 340g)과 벤티(라지·약 566g) 사이즈 커피는 각각 10센트 이상 인상된다. 인상된 벤티 사이즈의 커피는 2.45달러(약 2770원)다.

그러나 그란데(레귤러·약 450g) 사이즈와 프라프치노의 가격은 그대로다.

스타벅스는 이번 가격 인상이 20% 이하의 고객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6월 4년 만에 처음으로 그란데 사이즈 커피를 포함한 대부분 음료의 가격을 인상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 생산지인 브라질의 가뭄이 지속되며 원두

공급에 대한 우려로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재 아라비카원두의 선물 가격은 1년 반 전보다 하락하는 등 커피원두 가격은 하양세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는 '커피 가격은 커피원두뿐만 아니라 렌트비, 인건비, 시설비가 포함된다'며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주 미국 음식료 회사 J.M. 스머커는 커피원두 가격 인하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폴저스와 던킨 도너츠의 원두를 약 6%정도 인하했다고 밝혔다.

한편 스타벅스는 미국에서 가장 큰 커피 전문점으로 작년에만 600여 개의 지점이 새로 오픈했으며 전세계적으로는 2만개의 지점이 문을 열었다.

dmswl0601@news1.kr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블랙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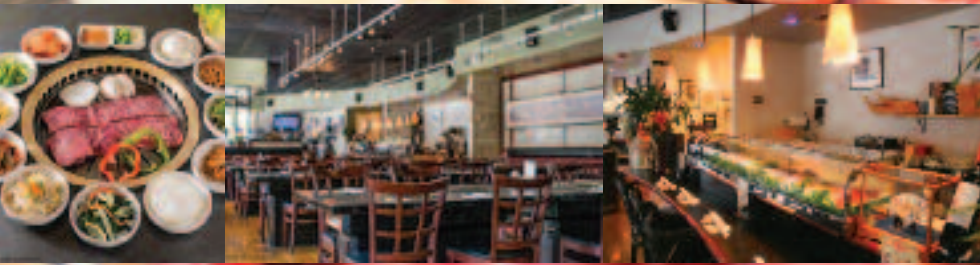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최상급 블랙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http://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Parking Information**

-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 길을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http://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mailto:Steven@stevenkimlaw.com)

**MATH GAME HOUSE**

**programs for the talented**

Offering stimulating & fun sessions for the curious minds since 2000

M.A in Math Education, Stanford University

**SUMMER STUDY 6/22 – 7/31**  
 Courses, SAT, Problem Solving  
 가을학기 시작 9/8

뉴튼 센터 617-527-0275  
[www.mathgamehouse.com](http://www.mathgamehouse.com)  
 email: [mathgamehouse@mac.com](mailto:mathgamehouse@mac.com)

# '유승민 뜨고 김무성 주춤'...여당 대권구도에도 시각변동?

김무성, 친박 손 잡고 '대표 프리미엄'...변화에 인색한 보수 이미지 약점

유승민, 인지도 급상승...평의원 후보 조명받을까

행정경험까지 갖춘 김문수 오세훈 남경필 원희룡 여전히 '위협적인 잠룡'

(서울=뉴스1) 서상현 기자 = 13일 간의 '유승민 정국'은 여권의 대선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차차기쫓'으로 평가돼 왔던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의 '대권 차트' 진입이 이뤄지면서다.

"용감한 개혁으로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의 길을 가겠다"며 8일 직을 던진 유 전 원내대표는 9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김무성 당 대표를 오차범위 내로 추격했다.

여권 잠룡 리스트에서 하위권을 맴돌던 유 원내대표의 급부상은 다소 주춤거리는 김 대표로선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정치권은 김 대표와 유 전 원내대표가 자신들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면 현재 여권지형상 대권을

향한 '2강 체제'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집권여당의 대표 프리미엄이 있다. 대선주자 반열에서는 상수(常數)다. 대권을 향한 그의 모든 스케줄과 정치적 행위는 당 대표라는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있다.

김 대표는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TK(대구경북) 피로감'을 'PK(부산경남) 역할론'으로 치환해 경남권에서 절대적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마침 홍준표 경남지사는 성원종 리스트 과문으로,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번 '유승민 사퇴'에서 보듯 잦은 구설로 차트 밖으로 밀려나는 형국이다.

대권 주자이기도 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불러들여 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으로 앉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지난 4월 재보선에 조력자로 투입하면서 김 대표는 잠룡을 거느리는 '통큰' 이미지를 얻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천하의 인재를 구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한다면 '지도자감'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어 보인다.

게다가 이번 '유승민 정국'에서 '순망치한'으로까지 회자한 유 전 원내대표의 손을 놓고 청와대 및 친박계와 어깨동무를 하면서 '김무성계+친박'이라는 당내 최대 계파지형을 새로 쓰고

있다.

이번 유승민 사퇴 정국에서도 마침표는 유 전 원내대표가 찍었지만 그 과정에서 '중재는 김무성'이라는 인식을 각인시키면서 지난 철도과업에 이은 '해결사' 역할로 '균형감 있는 지도자'라는 이미지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14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할 김 대표가 '2기 당직인선'을 무난히 마무리하고 한동안 소원했던 당청관계를 회복한다면 대권을 향한 그의 도전은 순풍에 돛을 단 격이 될 듯하다.

반면 유 전 원내대표와 달리 변화에 인색하고 보수 노선을 고집하는데다 자신만의 정치철학의 부재, 재벌가문 출신 등은 분명한 약점으로 꼽힌다.

일부는 콘텐츠 부족을 최대약점으로 꼽기도 한다. 중도로의 세력 확장 능력이나 수도권과 청년층 공략에 대한 전략 부재도 숙제로 남아 있다.

유 전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김 대표와 정반대 이미지를 그려나가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수의 새 지평을 열겠다"면서 보수 개혁이라는 명확한 자기 노선과 정치철학을 국민에게 공개했다.

"중부담-중복지로 가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법인세 인상도 성역은 아니다"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이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꿔야 한다" 등은 중도로의 세력확장 가능성을 열고 있다. 김 대표 역시 "유승민은 당의 외연을 넓힌 큰 자산"이라고 평가할 정도다.

유 전 원내대표의 최대약점으로 꼽혔던 '낮은 인지도'는 이번 '사퇴 정국'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극복한 셈이 됐다.

8일 리얼미터가 긴급하게 실시한 여론조사(전국 성인남녀 500명 대상·유무선 자동응답전화 임의결기·95% 신뢰수준 ±4.4%P·응답률 6.2%)에서 유 원내대표는 여권의 대선주자 지지도 부문 2위(16.8%)로 부상했다. 김 대표(19.1%)와는 오차범위 내다.

새누리당 깃발만 꼽아도 당선된다면 TK에서 3선 국회의원 이력은 온실

속 화초처럼 큰 도전 없이 쉽게 성장했다는 지적을 불렀다. 하지만 유 전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당내 친박(親박근혜)계에 각을 세우며 원칙을 지켜낸 정치인이라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마디로 하루 아침에 전국적인 '스타 의원'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또 이번 사태로 '유승민 키즈'로만 통했던 소수의 측근그룹이 '유승민계' 내지는 친유계로 네이밍되면서 하나의 계파로 자리매김했다.

친유계는 TK 초선들과 서울대-위스콘신대 출신,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일부와 원내부대표단, 당 사회적경제특위 멤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일부 등으로 구성돼 있다.

dearpure@news1.kr

#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 Quincy College
- Middlesex Community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JULY 10TH - JULY 16TH, 2015**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KOREA'S GREATEST GIFT, MADE FRESH IN AMERICA.**  
 한국인의 자존심, 토바기 김치!  
 최고품질의 재료들로 직접 정성을 다해 만들어 더욱 맛있습니다.

**TOBAGI**

INTRODUCING A NEW LINE OF NATURE'S

Nature's 자연담은

## Rice

**KISSED BY THE SUN.**

ONLY MOTHER NATURE CAN MAKE RICE SO, SO GOOD. TRY IT. LOVE IT.

자연 그대로 담아 맛과 영양을 모두 갖춘 자연담은 곡물을 허마트에서 만나보세요

**Abalone**  
 냉동 전복 FROZEN  
**\$19.99**  
 lb.

**HARIM Instant Ginseng Chicken Stew**  
 하림 즉석 삼계탕 28.21oz.  
**2\$14.88**  
 ea./for

**Beef Top Blade Steak**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7.99**  
 lb.

**Organic King Oyster Mushroom**  
 유기농 새송이 버섯  
**\$3.99**  
 8oz. /pkg.

**CHG Cooked Seasoned Loach Soup**  
 춘향골 사합들 남원 추어탕  
**\$6.99**  
 15.8oz.

**CHORIPDONG Cornish Hen Soup Preparation**  
 초립동이 삼계탕 재료  
**\$3.99**  
 10oz.

**White Peach**  
 백도  
**\$1.99**  
 lb.

FRI./SAT./SUN ONLY 10/7/11/12 ONLY

**Seedless Watermelon**  
 씨없는 수박  
**\$5.99**  
 ea.

**Korean Melon**  
 참외 박스  
**\$15.99**  
 box

FRI./SAT./SUN ONLY 10/7/11/12 ONLY

**Fuji Apple**  
 후지 사과  
**\$0.99**  
 lb.

**Sliced Beef Short Plate**  
 냉동 삼겹 양지 슬라이스  
**\$7.99**  
 lb.

FROZEN

**Sliced Pork CT Butt for Bulgogi**  
 불고기용 냉동 돼지 목살  
**\$5.99**  
 lb.

FROZEN

**돼지 등갈비**  
 Baby Pork Back Rib (Whole Piece)  
**\$4.99**  
 lb.

**Marinated Tenderized Sliced Beef Rib Eye Steak**  
 양념 벌집 등심 스테이크  
**\$6.99**  
 lb.

**SUHYUP Yellowtail**  
 수협 냉동 방어  
**\$1.99**  
 lb.

FROZEN

**Illex Squid**  
 냉동 오징어 450-600's  
**\$1.99**  
 lb.

FROZEN

**Porgy**  
 흑도미  
**\$1.99**  
 lb.

FRESH

**TONGTONGBAY Dried Anchovy**  
 통통배 지리멸치  
**\$8.99**  
 8oz./pkg.

**Kyong Gi Rice**  
 경기미 15 lbs.  
**\$9.99**

MON - THU ONLY 13/14/15/16 ONLY

**BADAAECHAN SUHYUP Premium Roasted Seaweed**  
 수협 전장 김 선물세트 0.7oz. x 10ea./box  
**\$8.99**

MON - THU ONLY 13/14/15/16 ONLY

**MAXIM Coffee Mix**  
 맥심 커피 믹스 Original/Mocha Gold/100cnt - pkg.  
**\$10.99**

MON - THU ONLY 13/14/15/16 ONLY

**SAMYANG Fried Spicy Chicken Noodle**  
 삼양 불닭 볶음면 4.9oz. x 5ea./pkg.  
**\$4.99**

**CHORIPDONG Coarse Sausage**  
 초립동이 통통한 비엔나 소세지 8oz.  
**\$2.99**

**ORION O! Karto Potato Snack**  
 오리온 외 감자 All Flavors/4.06oz.  
**\$2.99**

**HAITAI Nougat Ice Bar**  
 해태 누가바 아이스크림 70mL x 8bars/box  
**\$3.99**

**NATURAL GARDEN Organic Pomegranate Juice**  
 네추럴 가든 유기농 석류 주스 33.8fl.oz.  
**\$2.99**

USDA ORGANIC

**SCOTT Bathroom Tissue**  
 스캇 화장지 20rolls/pkg.  
**\$13.99**

**Flip-Flops for Men/Women**  
 남성용/여성용 슬리퍼 Pair  
**\$2.99**

**LIVING ART Square Grill for BBQ**  
 리빙아트 사각 직화구이판 ea.  
**\$12.99**

**ZOJIRUSHI Gourmet D'Expert Elec. Skillet & Grill**  
 조지루시 전기 멀티 쿠키 & 전골 냄비 EP-RAC50XW/ea.  
**\$129.99**

# 유승민 "의총 뜻 받들어 물러난다...꿈을 향해 계속 갈 것"

박 대통령 불신임 발언 후 13일만에 사퇴... "용감한 개혁, 따뜻한 보수 길 가겠다"

4박 대통령 우회 비판했지만 직접 언급 안해... "거취 문제 혼란" 사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원내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에서 침통한 얼굴로 인사하고 있다

(서울=뉴스1) 서상현 기자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지난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유원내대표를 사실상 불신임한 뒤 13일만에 물러나는 것이다. 이로써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비롯된 새누리당 내홍은 일단락되게 됐다.

유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는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의 뜻을 받들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저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혼란으로 큰 실망을 드린 점은 누구보다 저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유원내대표는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거듭 국민에게 사과했다.

유원내대표는 이어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였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정치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사퇴하지 않고 의원총회의 뜻에 따라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는 것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우회 비판으로 풀이된다.

유원내대표는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지난 16년간의 질문을 오늘 아침에 자신에게 던져봤다면서 "정치는 현실에 발을 딛고 열린 가슴으로 승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아무리 욕을 먹어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라는 신념 하나로 정치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주간 저의 미련한 고집이 법과 원칙, 정의를 구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그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유원내대표는 "더 이상 원내대표가 아니어도 더 절실한 마음으로 꿈을 이루기 위한 길로 계속 가겠다"며 "지난 4월 국회연설에서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서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겠다. 제가 꿈꾸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의

길로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정치적으로 박 대통령과 다른 자신의 정치 노선과 신념의 길로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원내대표는 사퇴 회견문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유원내대표는 회견 뒤 기자들의 잇따른 질문을 받고 "그 정도 하시죠", "드릴 말씀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고 반복한 뒤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유원내대표는 회견문을 읽기 시작하면서 감정에 북받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입장을 읽어내려갔다.

앞서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유원내대표의 사퇴를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김무성 대표가 유원내대표를 직접 찾아 의총결과를 설명했다.

유원내대표는 이를 즉각 수용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30여명의 의원들이 발언을 했고, 이 가운데 유원내대표의 사퇴를 표결로 정하는 의견도 다수 개진됐다.

dearpure@news1.kr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의 뜻을 받들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된 나날을 살아가시는 국민 여러분께 저희 새누리당이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저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혼란으로 큰 실망을 드린 점은 누구보다 저의 책임이 큼니다. 참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늘 아침 여의도에 오는 길에, 지난 16년간 매일 스스로에게 묻던 질문을 또 했습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정치는 현실에 발을 딛고 열린 가슴으로 승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진흙에서 연꽃을 피우듯, 아무리 욕을 먹어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라는 신념 하나로 저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입니다. 저의 정치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습니다.

오늘이 다소 혼란스럽고 불편하

더라도 누군가는 그 가치에 매달리고 지켜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주간 저의 미련한 고집이 법과 원칙, 정의를 구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그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거듭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용서와 이해를 구합니다.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나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2월 당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총선 승리를 약속드리고 원내대표가 되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그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연설에서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서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겠다. 제가 꿈꾸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의 길로 가겠다.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하겠다" 고 했던 약속도 아직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원내대표가 아니어도 더 절실한 마음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길로 계속 가겠습니다.

저와 꿈을 같이 꾸고 뜻을 같이 해주신 국민들, 당원 동지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ydkim@news1.kr

## 여 불참으로 국회법 개정안 재의 무산...자동폐기 수순

(서울=뉴스1) 김유대, 김영신, 박응진, 유기림, 이정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6일 본회의 재의에 부쳐졌지만 결국 새누리당의 투표 불참으로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15일 정부로 이송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개정안의 위험적 요소를 지적하며 지난달 25일 재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시정 요구권을 갖는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시킨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1시간 가량 이어진 정의화 국회의장의 투표 독려에도 대부분 자리에 앉은 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은 여당 의원석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 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못하도록 기표소 입장을 일부러 지연하고, 의석에 앉아 '투표'라고 적힌 피켓을 여당 의원석을 향해 들어보이기도 했다.

재의가 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 처리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수 298명 중 과반인 15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표결이 성립된다는 얘기가.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새누리당(160명) 소속 의원 대부분이 이날 표결에 불참함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과반에 못미치는 130명에 그쳤다. 무소속인 정 의장과 여당 의원 가운데 정두언 의원은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시간 가량 진행된 투표를 종료한 정 의장은 표결 참여 인원이 과반에 못미치는 것으로 집계되자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표결 불성립'을 선언

했다. 표결이 불성립되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개표도 진행하지 못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 부의 가능안건으로 남아 있지만, 19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국회법 개정안 표결 불성립이 선언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투표 불참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날 본회의 불참을 선언,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기로 한 60여개 법안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이언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국회법 개정안 재의가 여당 의원 불참으로 무산됐고, 이에 따라 오늘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게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의총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이날 오후 9시 단독으로 본회의를 속개해 부의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이 시작되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투표'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을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표결이 불성립된 직후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과정이야 어쨌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과 관해서 우리 새누리당은 '강제성이 없다'고 해석했으나, 야당이 '강제성이 있다'고 계속 주장함으로써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어 왔었다"며 "정부 내 법령 유권 해석기관인 법제처에서 이와 관해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그 뜻

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법 표결 불성립과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하다"며 "의원총회 결정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애당초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 없다는 점을 야당이 공개 인정했으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소모적 논란의 처음과 끝은 야당의 자승자박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화살을 야당에 돌리기도 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감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감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 책임 진료

닥터스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환부가 손상되기전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룩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룩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 야 '박근혜법' 재발의... "무산된 국회법보다 강제력 더 강해"

박 대통령 1998년 공동발의  
국회법 개정안 그대로 제출

발의에 참여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원  
안 그대로 다시 담았다.

안 의원의 개정안에는 '국회 상임위  
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  
배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의  
견을 제시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  
다'고 명시돼 있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법'이 박 대  
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6일 재의가  
무산된 국회법 개정안보다 시행령 수  
정에 대한 강제력이 더 크다고 보고 있  
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이상민 법제  
사법위원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원내  
대표단 16명이 공동 서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모법을 위  
반하고 있다고 자체 파악한 25개 법에  
대한 개정안도 조만간 마련해 추가로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  
위에서 전날 청와대가 '박근혜법'이라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새정  
치민주연합은 8일 '박근혜법'이라고  
명명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  
의에 부쳐진 국회법 개정안이 새누리  
당 의원들의 투표 불참으로 무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차원의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새정치연합 이윤석 원내수석부대  
표와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  
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내용의 '국회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1998년 당시 안상수 한나  
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 서명하며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수현 원내대변인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공동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인 1998년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던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을 '박근혜법'이라 이름 붙여 재발의했다

인 것에 대해 "대통령은 그 법을 발의  
한 게 아니라 공동서명했다고 강조했  
다"면서 "그런데 공동서명은 공동발  
의인 것이다. 무지해서 그런건지 하늘

을 손바닥도 아닌 손가락으로 가리려  
한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정도 되면 조선시대 흥  
길동전을 다시 꺼내야할 수준이다. 아

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른 흥길동처럼  
국민은 '박근혜법'을 박근혜법'이라 못  
부른다"고 꼬집었다.  
ptj@news1.kr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 청 "야, '박근혜법' 지칭 부적절"

과거 '국회법' 개정안 재발의 움직임에  
"언론도 신중히 다뤄 달라"

새정치연합에서 재발의하는 이 법  
안에 "중앙행정기관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  
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  
이 제시된 때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해당 법  
안이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위헌  
소지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  
법 개정안보다 "국회의 권한을 더 강  
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박 대통령  
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과거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국회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정부 재  
량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번 국회법 개정  
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표결  
에 불참함에 따라 '표결 불성립'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ys4174@news1.kr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청와  
대는 7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  
과 관련, 야당에서 과거 박근혜 대  
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공동 발의했던 국  
회법 개정안을 '박근혜법(法)'이라고  
부르며 재발의키로 한데 대해 "박근  
혜법이라고 지칭하는 건 적절치 않다  
"는 반응을 보였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추천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에)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붙이는 것도  
그렇지만, 당시 대통령은 법안을 (대  
표) 발의한 게 아니라 공동으로 서명  
했던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언론보도에서도 이  
부분을 신중히 다뤄 달라"고도 말했  
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  
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던 지난 1998년 당시 안상수 의원과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17  
년 전 내용 그대로 이날 다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기나긴 메르스 사태..종식지는 삼성서울병원

당국 집중 관리병원 두 곳 중 강동  
경희대병원 11일 먼저 격리해제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자택 격리  
자와 병원 격리자 관찰 뒤 차후  
해제 평가논의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마스크를 쓴 채 음압격리텐트로 향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영성, 음상준 기  
자 = 메르스 확진자가 나올때 발생  
하지 않아 총 186명이 유지됐다. 앞  
으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  
을 경우 보건당국의 마지막 메르스  
집중관리병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될 전망이다. 현재 관리병원은 강  
동경희대병원까지 총 두 곳이지만  
강동경희대병원은 이를 뒤인 11일  
격리가 먼저 해제된다.

보건당국은 강동경희대병원의  
경우 병원 격리자는 모두 해제되고  
자가 격리자만 94명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0일까지 잠복기가 남아 관  
찰한 뒤 11일 모든 격리가 해제돼  
13일 재개원한다는 계획이다. 앞  
으로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자가 격리  
에 대한 모니터링만 남은 셈이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  
센터장은 9일 메르스 브리핑에서  
"강동경희대병원 추가 확진자로  
부터의 접촉자들 잠복기가 10일까  
지 남아있어 11일 해제 후 이를 뒤  
재개원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동경희대병원 간호사인  
182번환자(여, 27)는 메르스 확진관  
정을 받기 전날인 6월25일 출퇴근  
을 하면서 강동구 지역 대중교통을  
이용해 7월 10일까지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의료진 감염자가 늘어났던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메르스 확진  
자 진료를 한 번이라도 맡았던 960  
명 의료진에 대한 격리 관찰이 순차  
적으로 남아있다. 삼성서울병원은  
현재까지 의료진 확진자 2명을 제  
외한 다른 의료진의 경우 1차 유전  
자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  
다.

이들 각자 14일 자가격리 후 유전  
자 검사에서 다시 음성이 확인되면  
업무에 복귀될 예정이다.  
아울러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확

진자가 진료했던 환자 21명도 병원  
내 입원격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당국은 이들이 잠복기가 아직 종  
료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  
센터장은 "삼성서울병원은 추가  
적인 메르스 노출 위험은 없는 상태  
이지만 격리자들이 있어 즉각 대응  
팀과 민관합동대책팀에서 매일 회  
의를 하며 위험도에 대한 평가를 하  
고 있다" 고 밝혔다.

한편 보건당국은 이날 메르스 확  
진자와 사망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  
아 각각 186명, 35명으로 집계됐다  
고 밝혔다. 퇴원은 1명이 늘어 총  
120명이다. 치명률은 18.8%로 나타  
났다.

ys4174@news1.kr



#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파전,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가족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서울 on Beacon Hill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ou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Dedicated to  
Your Health

#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료,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http://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Eugene Khang DMD(강유진)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http://www.prospectdental.com)

TEL: 617.576.5300



Salon Sabrina

#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파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남자컷 25볼/여자컷 30볼/파마 70볼 부터  
디지털 130볼 부터/케라틴 매직 220볼 부터 시작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 노건평 "성완중 수사결과 사실과 달라 명예훼손" 1억대 소송

7일 정부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로 심각하게 명예훼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고(故)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73)씨가 정부를 상대로 1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씨 측은 7일 창원지법에 대한민국에 대해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씨 측은 "최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사실과 달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성 전회장의 1차 사면과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사면 청탁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그런데도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은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성 전회장의 2차 사면과도 전혀 무관하다"며 "그런데 청탁을 받아 측근이 운영하는 기업을 통해 5억원을 수령한 것처럼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노씨 측은 "검찰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검토했다"면서도 "수사대상이 검찰이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 명백해 형사고소 대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2일 '성완중 리스트'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성 전회장 특별사면 의혹에 연루된 노씨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형 노건평(73)씨

## '성완중 리스트' 수사 용두사미...친박계만 면죄부 준 꼴

한달 동안 주력한 특별사면 의혹 결론은 공소권 없음...물타기 수사 논란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정치권의 핵 폭풍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성완중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의 형태로 마무리됐다.

공여자가 사망한 가운데 그나마 최선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공교롭게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6명 모두 친박계 인사라는 점에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밀지도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성완중 리스트와 무관한 성 전회장의 특별사면 의혹의 경우 전직 대통령의 친형을 다 시금 소환해 조사했지만 결론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돼 물타기 수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리스트 8명 중 2명 기소...최선의 성과? 친박계에만 면죄부?

지난 4월 고(故)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시작된 검찰의 수사가 82일 만에 종결됐다.

성 전회장의 사망 후 그의 옷에서 발견된 '메모지'와 생전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치권 유력 인사 8명의 이름과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당초 공여자가 사망한 마당에 수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검찰은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의욕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직접 보고를 받고 검찰내 특수팀으로 잔뼈가 굵은 문무일 검사장이 진두지휘하는 특별수사팀이 가동됐다.

초반 특수팀은 흥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

구 전 국무총리를 연이어 포토라인에 세우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로비 의혹에 대한 주변인물들의 진술이 나오며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었다.

하지만 거기까지가 끝이었다.

성 전회장으로부터 각각 1억원, 3000만원을 받은 흥 지사와 이 전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나머지 6명에 대한 검찰수사는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다.

수사 시작 3개월 뒤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됐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친박계 6명은 모두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리스트 속 6명 가운데 5명은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두 차례 서면조사가 이뤄졌을 뿐이다.

유일하게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흥문중 의원의 경우 메모지와 성 전회장의 육성 인터뷰를 통해 금액(2억원)과 시기(대선 전)가 특정됐지만 구체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특히 흥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의 경우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인물들이라는 점에 검찰의 수사가 대선자금으로 확대될지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검찰은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며 대선자금과 성 전회장의 로비자금은 무관하다고 결론 지었다.

◇물타기 수사, 별건 수사, 저인망식 수사 논란

성완중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는 특별사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물타기 수사, 별건 수사 논란 속에 막판 훈탁 양상으로 흐르며 뒷맛이 개운치 않은 모습도 보였다.

검찰은 수사 막판 6월 한달을 특별사면 조사에 할애했다.

참여정부 민정수석 2명과 전 참여정부 법



문무일 특별수사팀장이 2일 오후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성완중 리스트'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무비서관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 조사한 데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가 성 전회장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특사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이 노씨를 소환한 데 이어 노씨의 주변인물까지 소환에 나서자 저인망식 수사를 펼친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친박계 인사들이 경우 서면조사로 대체한 데 반해 노씨의 경우 소환을 고집하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당초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시행되는 특별사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가 되겠느냐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특사 개선 발언 후 검찰의 태도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박 대통령은 5월4일 성 전회장이 과거 참여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특별사면을 받은 배경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사면 제도도 개선해가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친박계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리스트와 상관없는 특사 문제를 언급한 것을 두고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쏟아졌다.

또 검찰이 특별검사 도입을 너무 의식해 불거진 모든 의혹을 다 들여다 보면서 수사 집중도가 떨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예상대로 정치권에서는 검찰수사가 종결되자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진실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검찰이 '성완중 리스트'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정말 치욕적인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만은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정치권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oazhoon@news1.kr

# JESSICA BEAUTY

한국 종합 화장품 | 참존 화장품 직영

**시선집중** 잡티개선, 주름개선, 탄력개선, 미백까지...

“화장품에도 당신의 인격과 품격이 묻어납니다”

나만의 화장품으로, 내 피부는 내가 만든다.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상륙** 참존 스킨타운샵에서 피부관리 하시는 멤버에게만 사용하는 제품

**처진 피부에 희소식**

스킨타운 프리미엄 리와이징 크림으로 처진 피부를 개선 (탄력강화 조식이 살아납니다) 잡티 개선 참인셀 비타민C.E크림



617.770.0188  
온라인 쇼핑몰 오픈 | 무료배송

**JessicaSecret.com**

219 Quincy Ave. #31-A, Quincy, MA 02169  
金門 Kam Man Food 중국마켓 안에 있습니다



## 보스톤 근교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 수잔 안 부동산

**"TOP PRODUCER"**  
#1 Agent Million Sales



'Top-Producer'의 Know-how로 고객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ell: 339.224.1512

안수잔의 '고객 만족 최우선' 서비스

- 집 빠르게 팔고 사고
- 최고가격, 최고 서비스
- 건물 투자 상담



**Somerville 5 Family \$ 999,900**  
연수입 \$78900, 주거 면적 3072 Sq. 업데이트가 많이 됨.(Anderson window, hard oak floors, granite counters, stainless appliances, Central Air Conditioning and in unit laundry), 경쟁력 있는 위치.



**Brookline 2 Family \$ 1,100,000**  
Tax\$8490, 주거면적2366sq, 대지면적4892sq, 좋은 학교, 잘 관리 된집, Green line D 근처, Rt 9, 최상의 위치. 물 근접, 5 year Roof, 업데이트 heating system, 창문



**Newton 2 Family \$749,900**  
2가구 세들어 있음, 총 수입 약 55,000, 대지 면적 6555 sq.ft, 년Tax \$5664



**Newton \$1,300,000**  
2가구입주, 연수입\$84,500, 대지면적9229sq ft. 업데이트 많이 되어 있음. 렌트하기 좋은 위치( T 근처), 보스턴칼리지



**Newton \$1,999,000**  
2013년 새집. 최고 학교, 주거면적 5857sq ft. 대지면적 10990 sq ft. 방5개, 화장실5.5개 Energy Star,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High school



**Newton \$999,000**  
2013년 새집, 방 4개 화장실 3개, 좋은 학교 보기도문 새집 가격, 주거 면적 3850sq ft, 대지 면적8700 sq ft.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Reading \$ 365,000**  
2013 새 콘도 분양. 좋은 학교, 편리한 교통, 렌트비보다 저렴한 페이먼트, 방2, 화장실2개, 주거면적 1300sq ft. 30만불대는 한 유닛 남았음. 95 고속도로 근처, Garage Parking



**Burlington \$ 589,000**  
2013년 새집. 방3개, 화장실 2.5개, 주거 면적 2000sq ft, 대지 면적 4775 sq ft. H mart 상권 근처.



**Boston Fenway \$ 364,000**  
방 1개, 화장실1개, 주거면적 576sq ft, 콘도 fee \$ 298 (Heat, Hot water포함) 보스톤 중심의 대학가, T Station, 공원, 박물관.



**Winchester \$1,390,000**  
2013년 새집 최고의 학교 방4개 화장실 4.5개 주거면적 4000sq ft. 대지면적 17548sq ft. 마루 바닥, 최고의 학교, 편리한 교통

**“TOP 에이전트가 TOP으로 모십니다”**

**centre realty group**  
1280 Centre St, Newton Centre, MA  
460 Main St, Watertown, MA

##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Weekend Sunday 10am (English) 11:30am(Korean) 4:30pm(Korean)  
Weekday Tuesday 10:30am(Korean), Thursday 7:30pm(Korean)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은  
새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부터 시작합니다.

미사안내

No English Mass  
Sunday 10 am  
2015년 6월 21일~ 2015년 9월7일까지  
2015년 9월20일-야외미사

New Mass  
Sunday 8:30 am  
6월 첫째 주부터 8월 마지막 주까지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7 CLEMA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주일 예배: 오후 2:00      금요 모임: 저녁 7:30

이 작은 삶이 많은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이 러니마 (8편 3:18)

담임목사: 우시창  
안 교회: (781) 715-0571      팩스: (781) 645-0407  
http://bostongracechurch.org

##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30분  
담임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GPS 주소: #12station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권중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보스턴 남부지역의 한인교회

## 보스턴새힘교회

76 Pierce St. Stoughton MA 02072

주일예배 오후 1시 617 622 5225

##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혀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 금 오후 8:00  
새벽예배 :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보스턴에는  
보스턴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턴코리아는  
보스턴 언론으로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건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턴 한인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617.792.6876  
bostonkorean@hotmail.com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 한진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어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꼼꼼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접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춧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mailto:Happydolsang@gmail.com)

#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 617.877.3435

Fax: 617.566.7982 [www.stevesuh.com](http://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http://www.suhladyer.com)

# 2015 패트리어츠의 가장 큰 장애물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지난 시즌 수퍼볼 챔피언으로 최고의 영광을 안았던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트레이닝 캠프가 3주차를 넘어가고 있다. 지난 해 대럴 레비스의 영입으로 세컨더리를 대폭 보강했던 패트리어츠는 말콤 버틀러가 예상치 못한 활약을 펼치며 수퍼볼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트레이닝 캠프가 4주차를 지나는 시점에서 앞으로 예상치 못한 많은 변수들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패트리어츠의 가장 큰 장애물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

### 주전 선수들의 부상

풋볼은 프로 스포츠 중에서도 가장 격렬한 경기로 꼽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선수들이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다. 주전 선수들의 부상과 복귀 시점, 그리고 대체 가능 선수들의 여부에 따라 팀의 운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풋볼 아웃사이드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로스터 상에서 패트리어츠는 NFL에서 12번째로 선수들이 건강한 팀이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공식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려져 있는 선수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

간단한 예로 패트리어츠의 스타 쿼터백 탐 브래디는 시즌 중에 종종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선수로 부상자 명단

에 이름이 오른다. 그러나 지난 시즌 브래디는 전 경기에 선발 출전했다.

지난 시즌 패트리어츠는 6주차 경기에서 수비의 핵심인 제라드 메이요와 주전 러닝백 스티븐 리들리를 잃었다. 두 선수 모두 시즌이 끝날 때까지 경기장에 돌아오지 못했다.

반면에 쉐들러 존스는 엉덩이 부상으로 정규 시즌에서 6번이나 출전을 하지 못했지만 부상에서 회복되어 포스트 시즌에는 출전할 수 있었다. 존스의 복귀로 패트리어츠는 수비에서 큰 활력을 얻었다.

지난 시즌 패트리어츠는 주전 선수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도 그 공백을 다른 선수들이 메우거나 중요한 시기에 선수들이 복귀할 수 있었다. 경기 중 부상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2015 시즌에서도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선수들의 부상에도 약간의 행운이 필요하다.

### AFC 동부지구의 수비

패트리어츠는 십 년이 넘는 기간 동안 AFC 동부지구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했다. 같은 지구에 속한 팀들과의 경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진출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같은 지구에 속해 있는 빌스, 제츠, 돌핀스 등의 팀들이 앞다투어 디펜시브 라인 선수들을 대폭 보강



4개의 수퍼볼 우승 반지를 갖고 있는 탐 브래디는 올해 4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했다. 디펜시브 라인만 놓고 본다면 AFC 동부지구의 팀들은 NFL 최고 수준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패트리어츠 역시 오피시브 라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작년에 예상 외로 루키 시즌을 훌륭하게 소화한 라이언 스톡 같은 선수가 올해도 등장할 수 있다. 패트리어츠의 오피시브 라인이 AFC 동부지구에 속한 팀들의 강력한 디펜시브 라인을 상대로 얼마나 선전할 수 있는지에 따라 올해 성적이 달라질 수 있다.

### 쿼터백 불확실성

현재 패트리어츠의 주전 쿼터백 브래디를 둘러싼 상황은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 디플릿게이트에 관여한 혐의로 브래디는 NFL로부터 4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다. 브래디는 이에 항소를 했지만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만약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

브래디는 패트리어츠 공격의 핵심이자 NFL에서 가장 안정적인 쿼터백이다. 10년 넘게 패트리어츠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브래디가 쿼터백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줬기 때문이

다. 백업 쿼터백인 지미 거라폴로의 기량이 향상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프로 무대에서 한 번도 선발 쿼터백으로 출전한 경험이 없는 거라폴로에게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패트리어츠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방법을 찾아내어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언제나 브래디와 빌 벨리치 감독이 있었다. 올해는 브래디-벨리치 조합이 사라진 패트리어츠를 보게 될 수도 있다.

jsi@bostonkorea.com

## [MLB] 강정호, '발로 만든' 2루타에 썩기 타점까지...멀티히트 활약

피츠버그, 샌디에이고 3연전 스윙...5연승 행진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4번타자'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맹활약을 펼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강정호는 9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파크에서 벌어진 2015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에서 4번타자 3루수로 선발 출장해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하며 팀의 5-2 승리를 주도했다.

4경기 연속 안타에 시즌 14번째 멀티히트를 기록한 강정호는 시즌 타율도 0.259에서 0.263로 끌어올렸다.

강정호는 첫 타석에서 공격적인 베이스러닝으로 팀의 첫 득점에 앞장섰다. 0-2로 뒤진 2회말 선두타자

로 첫 타석을 맞이한 강정호는 상대 선발 앤드류 캐시너와 풀카운트 접전을 벌였다. 강정호는 7구째 96마일(약 154km)짜리 직구를 받아쳤고, 타구는 유격수 방면으로 날카롭게 향했다.

샌디에이고 유격수 알렉시 아마리스타가 몸을 던졌지만 공은 글러브를 맞고 굴절됐다. 이 틈을 놓치지 않은 강정호는 지체없이 2루로 달리면서 '발'로 2루타를 만들어냈다. 시즌 10번째 2루타였다.

프란시스코 서벨리의 2루 땅볼 때 3루로 향한 강정호는 페드로 알바레스의 좌익수 플라이로 흠을 밟았다. 이번에도 그다지 깊지 않은 타구였지만, 강정호는 빠르게 흠으로 내달려 득점에 성공했다. 강정호의 시즌 23번째 득점.

강정호는 4회말 두 번째 타석에서는 내야 뜬공에 그쳤다.

7회말에는 무사 1,2루에서 타석에 들어서 중견수 뜬공을 쳤다. 이 타구에 2루주자 닐 위커는 3루로 향했다. 다음 타석의 서벨리의 땅볼 때 위커가 흠을 밟아 스코어는 2-2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어리츠)

동점이 됐다. 강정호는 첫 득점에 이어 이번에도 득점에 공헌했다.

강정호는 8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썩기 적시타를 날렸다. 그레고리 폴랑코와 앤드류 맥커친의 적시타로 4-2 역전에 성공한 상황, 2사 1,2루에서 강정호가 타석에 들어섰다. 강정호는 2볼2스트라이크에서 6구

째 90마일(약 145km)짜리 슬라이더를 받아쳐 3-유간을 가르는 안타를 만들어냈다. 이 타구에 2루주자가 흠을 밟아 5-2가 됐다.

8회에만 3점을 뽑아 역전에 성공한 피츠버그는 9회를 잘 막고 승리를 지켜냈다. 강정호는 2사 2루에서 데릭 노리스의 타구를 잡아내 경기

를 마무리하는 호수비를 선보이기도 했다.

샌디에이고와의 3연전을 스윙한 피츠버그는 최근 5연승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시즌 50승(34패) 고지를 밟은 피츠버그는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2위를 지켰다.

starburyny@news1.kr

휴람제휴  
이벤트



#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 서울메디케어

서울메디케어는 연면적 1000평에 달하는  
서부권역최고 최다수준의 대학병원급 건강검진센터입니다

서울메디케어 ·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검진 프로그램  
(수면대장내시경 포함 시 10만원 추가)

유급기간	47~55	59~65
유급료	91~	103~
휴가수당	228~	240~

### 휴람 제휴 이벤트

## 루트모발 이식센터

6명의 모발이식 전문의료진  
4개의 모발이식 전용수술실

휴람제휴 해외동포 특별가 이벤트  
모발이식 6만원의 할인  
수술후 세정제 3만5천원 Free  
생착률을 도와주는 EGF가 3만원 Free

절개	비용	비절개	비용	절개+비절개	비용
4000모	290만원	2000모	40만원	7000모	790만원
5000모	390만원	2500모	45만원	8000모	890만원

###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 새미치과 특별할인

새미치과 이벤트	오스템 임플란트 -150만원 120만원	무삭제 라미네이트 -80만원 60만원	오스템 이백 1회 20만원 +1회 제공
----------	-----------------------------	----------------------------	-----------------------------

고국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임플란트 시술받으세요!

새미치과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웃음을 찾아드립니다.

대표분야: 임플란트, 치아미백, 치주치료, 심미보철, 예방치료

###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 에디고 에스테틱 특별할인

에디고 에스테틱이 특별한 이유

스페이스 힐링 케어 - Facial care + Healing back care - 120 min	스페이스 힐링 스칼프 케어 - Healing scalp care + Facial care - 120 min	스페이스 슬리밍 케어 - Facial care + Slimming leg care - 120 min
19만원 → 15만원	29만원 → 16만원	25만원 → 20만원

전신 홀리스틱 아로마 케어  
- 아로마 전신케어 + 광역복합케어

전신 고주파 케어  
- 고주파 전신케어 + 광역복합케어

32만원 → 26만원

39만원 → 30만원



미국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이메일 huramceo@haram.kr

한국문의 82.70.4141.4040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카카오톡 010.3469.4040 / ID:huramkorea



한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끈 제품

어머님 & 아버님 선물로 안성맞춤

# 효도 라디오



- 숫자버튼을 이용한 초간편 사용법
- USB메모리, TF카드 (MICRO SD)에 저장된 MP3파일 직접재생
- 고성능 FM라디오
- 스마트폰, 노트북, 넷북, MP3플레이어 등의 스피커로 사용가능
- 비상용랜턴 가능
- 탈착식 리튬이온 충전배터리
- LED디스플레이 (FM주파수, 음악재생시간, 곡 번호 표시)
- 이어폰단자 채용 (스테레오)
- 3W파워스피커 + 3W 하이브리드 우퍼 채용
- 핸드스트랩 기본장착

**\$69**  
(가요5200곡 또는  
성경&찬송가 택일)

**\$79**  
(가요5200곡 +  
성경&찬송가)

주문 전화 보스톤코리아 사업국 617-955-9112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마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력 / 50여 지역 미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499,000  
Sharon, MA  
3 Beds, 2 Baths, 1440 sf.  
Two-level ranch home  
Fully fenced in yard, 좋은 학교  
이현주 401-935-3397



\$579,0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303 sf.  
New septic system  
편리한 교통  
이현주 401-935-3397



\$364,900  
Braintree, MA  
3 Beds, 1.5 Baths, 1266sf.  
Great Location!!  
많이 업그레이드 된 집  
이현주 401-935-3397



\$609,000  
Andover, MA  
3 Beds, 2.5 Baths, 2900 sf.  
안전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  
밝고 좋은 구조의 집  
제니스리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60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8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949,900  
Arlington, MA  
5 Beds, 3.5 Baths, 3498sf.  
Maintained 2002  
Quiet Cul-De-Sac  
Anna Jung 617-780-1675



\$1,399,000  
Lexington, MA  
5 beds, 3.5baths, 4050 sf.  
Maintained 2012  
Top notch construction  
OT Kim 617-620-8242



\$525,000  
Canton, MA  
3 beds, 2.5 baths, 1848 sf.  
Charming cape in a great  
Convenient Location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599,900  
Wilmington, MA  
3 Beds, 2.5 Bath, 3100 sf.  
편리한 교통, 관리가 잘된 집  
Anna Jung 617-780-1675



\$339,000  
Framingham, MA  
3 Beds, 1.5 Baths, 1452 sf.  
Excellent location  
Gina Choi 978-866-3248



\$420,000  
Boston, MA  
1 Bed, 1 Bath, 474 sf.  
Luxury condo  
Jay Lee 781-654-5281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Restaurant**

\$150,000  
Amherst, MA  
한국에서 오래 장사한곳  
Kwang O. Kim 617-792-8615

**Restaurant**

\$2,600,000  
Dedham, MA  
High traffic main road  
399 seat, Full Liquor License  
Sue Rong Tsai 617-792-8842

**한국프렌차이즈 가맹주 모집**  
Call for detail  
S.J Park 617-304-7001

**Beauty School**

\$135,000  
Woburn, MA  
좋은 시설, 편리한 장소  
Gina Choi 978-866-3248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180,000  
Bedford, MA  
Turn Key Business  
26년동안 잘 운영된 비즈니스  
Kwang O. Kim 617-792-8615

**Condo Rental**

\$1,450  
Acton, MA  
2 Beds, 2.5baths, 820sf.,  
안전하고 좋은 학교  
Gina Choi 978-866-3248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l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국 최대의 부동산 그룹 / 2008년 144 / 2009년 144개 사무소 /  
전국에서 부동산을 / 2008년 144개 사무소 / 2009년 144개 사무소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Hazel Seung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Chris Ferron  
978-905-9014

<b>Restaurant</b>  \$479,000 <b>Cambridge, MA</b>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b>Full Plant Cleaner</b>  \$180,000 <b>Bedford, MA</b> Established in 1989 Great potential to grow Kwang O. Kim 617-792-8615	<b>Full Plant Cleaner</b>  \$180,000 <b>Salem, MA</b> Salem Downtown Turn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b>Restaurant</b>  \$499,900 <b>Brookline, MA</b>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b>Business Consulting</b>  <b>레스토랑 셋업 컨설팅</b> SJ Park 617-304-7001	<b>Commercial</b>  <b>커머셜 건물 투자</b> S.J Park 617-304-7001	<b>비즈니스 빈자리</b>  <b>센트랄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b> S.J Park 617-304-7001	<b>병원건물</b>  \$860,000 <b>Worcester, MA</b> 6552 sf., 38대 주차공간 Umass Memorial 병원 옆 Anna Jung 617-780-1675
<b>Coin Laundry</b>  \$55,000 <b>Brookline, MA</b>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	<b>Restaurant</b>  \$199,900 <b>Newton, MA</b> Korean-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and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b>Sushi Bar</b>  \$90,000 <b>Newton, MA</b> Good Location 성장 가능성 많은 비즈니스 Anna Jung 617-780-1675	<b>Full Plant Drycleaner</b>  \$19,000 <b>Norwood, MA</b> 40 lbs Washing Machine 넓은 주차공간 Anna Jung 617-780-1675
<b>Investment</b> <b>E-2 &amp; EB-5 투자</b> 문의 781-259-4989	<b>Restaurant</b> \$120,000 Boston, MA Beer&Wine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b>Full Plant Cleaner</b> \$19,000 Norwood, MA 40 lbs washing machine Anna Jung 617-780-1675	<b>Restaurant</b> \$2,600,000 Dedham, MA Legacy Place Center Sue Rong Tsai 617-792-8842
<b>Beauty Service</b> \$100,000 Newton, MA A turn 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b>Full Plant Cleaner</b>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Anna Jung 617-780-1675	<b>Restaurant</b> \$198,000 Cambridge, MA 하버드 스퀘어에 위치 Anna Jung 617-780-1675	<b>APT Rental</b> 보스턴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오빠스시 OPPA SHUSHI**  
www.oppasushi.com

**사시미:**  
상징적인 생어와 훈마구로 참치, 방어, 흰푸나, 레드스네이크, 생굴과 생우니, 한치회무침과 배운탕까지

**스시와 롤:**  
상징적인 훈마구로 참치, 스크티시 셀몬, 히마찌, 장어, 새우, 오징어 등등

**사시미 롤코스  
김밥**

안녕하세요 교민여러분,  
업스톤에 위치한  
저희 오빠스시에서  
상징적이고 맛있는 사시미와  
스시, 롤과 김밥을  
365일 캐더링  
예약 판매합니다.  
각종모임에 애용바랍니다.

**617-202-3808** •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www.Stevesuh.com

**617-877-3435**

Vol. 11 No. 27 July 10 2015

발행처 : The Boston Korea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업소탐방 294

아백푸드트럭

## 칠리 망고 앤 라임(Chili Mango&Lime)

chilimangoandlime.com

연타비 7기 10월 17일(토) 18시 30분부터

Welcome, **7DO** 한국 방송 3사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언한는 한국 방송 언한는 시기에  
내마음대로 무한대로 시청하다

티보 플레이어의 특별한 장점

화질을 비교해 보세요  
HD TV의 선명한 화질

YTN 과 아리랑 방송 24시간 실시간 방송 시작!  
라이브 생방송도 즐기고 원하는 시간에 무한대 시청도

방송3사와 케이블 합법 계약  
공감없이 티비를 시청하세요

7월 특별 할인!  
무제한 시청 월 \$29.99  
7월 31일까지 2년 약정시  
이동 기밀지 7월 시행료 무료

617.955.9112  
지점 연락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칠리 망고 앤 라임'은 보스톤의 이색 푸드트럭으로 특별하게 방글라데시아와 타이 음식을 함께 맛볼 수 있다.

칠리 망고 앤 라임의 미미(Mimi) 대표는 "사실 어느 동네를 가든지 한 블럭마다 있을 법 한 것이 타이 음식"이라며 호탕하게 웃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아 음식은 보스톤의 많은 사람들이 생소해하는 음식인 것 같다"며 뿌듯해 했다.

미미 대표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아 음식은 인도음식과 비슷하지만 쌀과 마른 향신료를 더 많이 사용한다. 타이와 인도 음식을 묘하게 섞어놓은 듯하면 서도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매력을 지닌 것이 방글라데시아 음식이라고

방글라데시 달(Bangladeshi Dal)은 미미 대표가 추천한 칠리 망고 앤 라임의 대표적인 메뉴로 렌틸 콩을 사용해 팔죽 비슷한 식감을 내는 수프다. 다섯 가지 향신료를 사용해 살짝 매콤한 맛을 내는 점이 독특하다. 가격(\$3)에 비해 양이 굉장히 푸짐하다.

메인 메뉴로는 방글라데시 치킨 커리(Bangladeshi Chicken Curry), 방글라데시 비프 부

나(Bangladeshi Beef Bhuna)가 있으며 많은 손님들에게 익숙한 팟타이나 치킨 그라파오(Grappow)도 있다.

방글라데시 치킨 커리는 인도식보다는 담백하고 부드러운 커리의 맛을 낸다. 칠리 망고 앤 라임에서는 가장 매운 메뉴로 등극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미국인 손님들의 입맛에 맞춘 기준이므로 이색적인 음식, 특히 인도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부담 없이 먹어볼 만하다.

콤보메뉴는 네 가지 메인 디쉬 중 하나를 선택하고 샐러드와 에피타이저를 각각 한 종류씩 추가할 수 있어 양이 굉장히 푸짐하다. 가격은 \$10.50이다.

미미 대표는 방글라데시아인 남편 조니(Jony)와 함께 지난 1월 푸드트럭 사업을 처음 시작했고 여느 비즈니스 못지 않게 힘든 겨울을 보냈다. 폭설로 인해 트럭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던 것. 하루는 힘겹게 눈을 치우고 나갔지만 한 명도 푸드트럭을 찾지 않은 날도 있었다는 안타까운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날이 따뜻해진 4월 즈음에야 겨우 손님유치에 나설 수 있었다는 미미 대표는 "이제는 어느 곳에 가던지 늘 반가운 단골 손님이 있어 행복하다"고 말

한다. "식당 사업보다 준비하는 것도 많고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러 직접 돌아다니는 것이 너무 즐겁다"고

칠리 망고 앤 라임은 시청광장이나 보스톤 메디컬 센터, 더들리 스퀘어 등을 방문하며 매일 이동 스케줄이 바뀐다. 사전에 해당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facebook.com/AsianOnWheels)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드 결제는 \$6부터 가능하다. dyoo9146@bostonkorea.com



**지구촌방주교회**  
Global Ark Baptist Church

2015 출애굽기 시리즈  
주일에매 1PM, 담임목사 유영일

bgabc.org  
홈페이지에서 설교, 찬양 영상 열어 설교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493 Main St. Malden, MA 02148  
TEL: 617.838.6434  
global ark baptist church in malden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617.536.8888  
myorienttravel@gmail.com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 한인 업소록

##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베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경찰서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텔레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 주요 단체

국제대한여성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대한여성선교연합회	603-889-8201
뉴잉글랜드공공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협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기술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안인협회	508-826-5270
이탈도도인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A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인협회(메인)	207-878-5652
625창조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약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공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당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4000
리생명의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신실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여우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6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2362
에이씨 뱀교회	978-274-3359
엠펙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엠펙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일주교회	617-642-7403
우스타 교회	508-799-4488
워싱턴시온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617-818-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390-6613
지구총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감리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당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 간판

조이스간판	617-470-1083
-------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김민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침문	617-999-9616
이블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정 골프 레슨	339-223-4700

###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 당구장

올스타당구장	617-782-0969
--------	--------------

### 동물병원

김분수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 떡/잔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커파티	978-468-0039
그레이스커파티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413-5372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알구정동열골방	617-438-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2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희희헤어(Blo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 변호사

김성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사무라이	617-236-7672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치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오셉치과	617-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	617-871-1482
퀸지스치과	617-471-2184
퍼스트코이스덴탈그룹	781-894-1127
프록스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란트	617-489-1470
전문치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브루클라인 근방 세탁소에서 프레스로 일하실 분 구합니다. T. 215-740-1025

세탁소에서 일하실분 구함 (프레스-오후 3시 이후 가능하신 분, 딜리버리) T. 617-840-1833

풀타임 아이들 돌봐주고 집안일 해주실 분(월-금), 자동차 운전 가능하신 분, 영어가능자, 경험자 우대 myk@myk-d.com

세탁소 셔츠 홀세일합니다. (산코사 기계 사용) T. 617-631-4915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CSI 찰스타운 캠퍼스에서 국제 입학 담당자를 구합니다. http://csinow.theresumator.com/apply/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For Sale - Nail & Spa**

Owner retired, Well established Nail & Spa in business 15 years, 6 tables, 4 spa chairs, 3 facial/waxing room, Modern elegant decor. Steady clientele, Big cash flow. Clients list included. Asked for 85K.  
**Buyer call 781-329-2716 English or Chinese**

**For Sale Dry Cleaner Brookline CollidgeCorner**

Well established customer and road basd (since 1959) New "Eco-Friendly" dry cleaning machine. Asking \$299,000  
**Contact Carl T.617-577-9872**

**하우스 매매**

웨스트우드(Westwood) 4베드룸, 3 배쓰, 1층 랜치. 조용하고 아주 좋은 위치 1.3에이커의 대지. 32Meadowbrook.com  
가격 \$749,000  
**리맥스 홈팀 617-933-9778**

캠브리지 하버드법대 근처 샌드위치 가게 판매, 매매가 \$150,000 (주인은퇴) T. 978-609-8752

**N[매매]**  
올랜드 디즈니 인근 주유소 판매 디즈니 방향8차선 교차로 로컬몰 진입로에 위치, 일일통행량 8만대 이상 100% Absentee Owner로 운영중 순이익 \$10,000/월, 판매가 \$250,000 lifeisgoodfl@hotmail.com  
**T. 863-800-0109**

**N[구인]**  
용모 단정하고 성실하신 여성분 기본급+TIP(고수입보장) 단골손님 많고 오래된 Bar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함께 오래 일하실분  
**T. 470-428-1010**

**N[그로서리 매매]**  
그로서리 매매코저 합니다 Hot Food, 델리,샌드위치 포함 월매상 \$60,000 이상 월 - 금 까지 OPEN 단독건물입니다 리타이어로 급매코저 합니다. T. 501-753-1691

**N[매매]**  
테네시에 위치한 13년된 세탁소 월마트 쇼핑몰에 위치함 매매가 \$ 320,000, 월매상 \$ 30,000 기계가 대부분 교체되어 새장비임 렌트비 월 \$ 2,500 , 면적 1,600sf  
**T. 931-241-0415**

**N[매매]**  
플로리다 잭슨빌에 있는 스파 매매합니다. 성공중인 가게로 건강상의 문제로 매매코저 합니다. 꼭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 바랍니다.  
**T. 321-458-2858**

**N[매매]**  
당도가 높은 콩, 간수 췌 천일염, 인디안 스프링 약수를 사용한 전통식 된장, 간장을 판매합니다. 지방 한인 마켓이나 단체 주문시 도매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T. 678-764-0331, 678-656-9977**

**N[매매]**  
메이컨조지아 근처 동양마켓겸 한식당매매 년매상 1밀리언 이상 건강상의 문제로 성공중인 한국마켓 및 안에 있는 한식당매매 현재 일하시는 분 7명 확실한 매상 수입, 전화문의 및 방문 환영  
**T. 615-714-8016**

**N[매매]**  
FL Stuart에서 7년째 영업중인 일식집, 2,000 Sf , 75석 월렌트 \$2,700. 매매가 \$50,000  
**T. 772-285-8629**

**N[매매]**  
샬롯, NC 일식당 매매 히바치 16 그릴 스키바 7,000 SF 단독건물 좋은 조건에 팝니다  
**T. 406-259-6211**

**N[매매]**  
치킨링, Fish(생선) 튀김가게 렌트비 월\$1,600 , 면적 1,400 SF 좋은 로케이션, 주변 식당들이 모두 잘 됨. 지역은 노스캐롤라이나 웨딩빌 장비는 거의 새것임 매매가격: \$70,000  
**T. 910-868-4499 (11AM - 7PM 까지)**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i.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al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5/1/14.



## '연평해전' 이념 논쟁? 해석은 관객의 몫

(서울=뉴스1스포츠) 장아름 기자 = 작정하고 정치 프레임을 씌우려는 영화가 존재하는 반면, 해석은 관객의 몫으로 여지를 남겨두는 영화도 존재한다. 비록 정치 프레임 형성이 우려가 되는 소재라 해도 이를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영화의 최종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 영화 '연평해전'(감독 김학순)은 엄밀히 말하면 과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지녔으나 비판적인 시각은 다소 부족한 작품이다. 이념 논쟁 조장까지는 아닐지라도 해석은 관객의 몫으로 남겨두는 작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차피 이러한 영화가 이념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 국내 영화계 현실이라면, 순수한 의도가 담긴 상업 영화라고 굳이 강조하는 바가 배급사의 고도의 마케팅 전략인 것이라면, 관객들은 자신의 감상을 직관에 맡기

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연평해전'은 지난 2002년 6월 대한민국이 월드컵의 함성으로 가득했던 그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과 그들의 동료, 연인,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다. 영화는 원칙주의자이지만 마음은 따뜻한 참수리 357호 정장 고(故) 윤영하(김무열 분) 대위, 아내와 살고 있지만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조타장 한상국(진구 분)하사, 청각 장애인 어머니에게 극진하면서도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는 의무병 박동혁(이현우 분) 상병 등 당시 대원들의 휴먼 드라마를 전면으로 내세운다.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해군 교전수칙에 대해 논의하는 장면이다. 해상 전투는 과거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드러내지만 피해자를 속출시켰던 해군 교전수칙에 대해 온전하게

비판적인 관점을 보여주지 않는다. 연평해전으로 기존 교전수칙이 시위기동과 차단기동수칙이 빠져 경교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으로 대폭 축소된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면을 단순히 표현적으로 묘사하는 데 그쳤다. 기억에서 흐릿해져 가는 송고한 회색을 스크린으로 옮긴 것은 그 자체로 유의미하다. 다만 관객들이 영화를 만나기에 앞서 사익과 선전 행위를 위해 단순한 진영 논리로 치부해버리려는 세력들이나 과도한 이슈 조장으로 그 희생의 고통을 감추려 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aluem\_chang@news1.kr

## '소수의견', 거대 배급사에 밀려 묻힐 위기

(서울=일간스포츠) 김연지 기자 = 높은 관객 평점과 평단의 호평을 끌어낸 영화 '소수의견'이 거대 배급사를 등에 업은 영화들에 묻힐 위기다. '소수의견'은 지난달 24일 개봉해 4일(이하 영화진흥위원회 기준) 누적관객수 32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날 개봉했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소재를 다뤘다는 점에서 개봉 전부터 비교가 됐던 영화 '연평해전'과 매우 대조적인 수치다. '연평해전'은 4일 누적관객수 287만 명을 기록하며 300만명 돌파를 목전에 뒀다. '소수의견'이 저조한 성적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로 영화 관계자들은 현격히 적은 상영관 수를 꼽는다. '소수의견'은 '연평해전'과 마찬가지로 9점대의 높은 관객 평점을 얻었지만, 개봉 첫 주부터 상영관 수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 "사전 예매율과 사전 관객들의 관람 의향, 평점 등을 빅데이터 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상영관 수를 결정한다"라고 한 영화관 측의 공식 입장과도 사뭇 다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개봉 첫 주 '연평해전'이 1013개의 상영관을 확보했지만, '소수의견'은 389개의 상영관에 그쳤다. 개봉 둘째주 역시 '연평해전'은 894개의 상영관을 차지했지만, '소수의견'은 194개의 상영관으로 대폭 줄었다. 5일 기준 일부 지역 영화관에선 '소수의견'을 아예 상영하지 않는다.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으니 관객수가 쑥쑥 늘지 않는 건 당연하다. kim.yeonji@joins.com

그렇다면 상영관 확보에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업계 관계자들은 '소수의견'은 배급사 파워에서 밀렸다고 입을 모은다. 관계자들은 "CJ·롯데·NEW·쇼박스가 배급을 맡지 않는다면 상영관을 많이 확보하기 힘들다"고 설명한다. '소수의견'은 CJ E&M이 배급을 중도 포기했고, 시네마 서비스로 배급사가 바뀌었다. '2009 용산 참사'를 모티브로 한 손아람 작가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소수의견'은 2013년 3월 촬영을 시작해 같은 해 6월에 크랭크업했지만, CJ 이재현 회장이 구속된 시점에 CJ E&M이 배급을 포기하면서 몸사리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던 영화다. 반면, '연평해전'은 NEW가 배급을 맡고 있다. 4일 기준 가장 많은 상영관수를 자랑하는 영화 '터미네이터 제네시스'(1113개)도 롯데엔터테인먼트가 국내 배급을 맡고 있다. 앞으로도 상영관 확보는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 영화 관계자는 "할리우드 대작 '주라기월드'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터미네이터 제네시스'까지 개봉했기 때문에 '소수의견'이 설 자리는 더 없어질 수밖에 없다"며 "'소수의견'은 작품성에 비해 화제가 되지 않아 아쉽다. 윤계상과 유해진의 열연도 빛나고, 김성제 감독 역시 신인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디테일한 연출을 뽐냈다. 이렇게 묻히기엔 너무 아까운 영화"라며 아쉬워했다. reddgreen35@news1.kr

## 빅뱅 'if you', 7월 첫째 주 주간차트 석권

(서울=뉴스1스포츠) 박건욱 기자 = 그룹 빅뱅의 'if you'가 7월 첫째 주 주간차트를 석권했다. 'if you'는 6일 오후 엠넷, 벅스, 지니, 네이버, 올레, 싸이월드 등 6개 음원사이트에서 주간차트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같은 결과는 지난 1일 공개된 순위에 반영되는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룬 기록이라 더욱 의미를 더한다. 해외에서의 인기도 여전하다. 이날 오전 2시 기준 아이튠즈 싱글차트에서 'if you'는 홍콩,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6개국에서 1위를 기록하며 순항중이다. 음원과 함께 공개된 '맨정신' 뮤직비디오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맨정신'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조회수 794만 9525뷰를 기록, 800만뷰를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편 빅뱅 지드래곤과 태양은 지난 4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kun1112@news1.kr



## 유재석 유희열, JTBC 예능으로 만난다 '유유콤비'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유재석 유희열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JTBC는 7월 'JTBC 새 예능프로그램 'TWO유 프로젝트'(가제)에서 유재석과 유희열이 의기투합해 유-유 콤비라는 새로운 조합을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히든싱어', '마녀사냥', '비정상회담', '냉장고를 부탁해', '크라임씬' 등 참신한 기획으로 예능계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JTBC

는 최고 MC 유재석에 유희열까지 가세함으로써 하반기 예능 관도의 핵으로 떠올랐다. 평소 절친 사이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재석과 유희열! 두 사람의 만남만으로도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TWO 유' 콤비(유재석+유희열)의 새 예능은 오는 8월 경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reddgreen35@news1.kr



# 한주간



# 시청률 순위

2015년 6월 29일 ~ 7월 5일

##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파랑새의집)	23.4%
2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지켜라)	22.7%
3	MBC	주말드라마(여자를올려)	19.9%
4	KBS1	KBS9시뉴스	16.7%
5	MBC	무한도전	15.6%
6	MBC	주말특별기획(여왕의꽃)	14.9%
7	KBS2	해피선데이	14.3%
8	KBS1	가요무대	13.3%
9	KBS1	인간극장	12.8%
10	KBS2	일일드라마(오늘부터사랑해)	12.5%

##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2	아침드라마(그래도 푸르른 날에)
2	MBC	일일연속극(위대한 조강지처)
3	MBC	주말드라마(여자를올려)
4	SBS	일일드라마(돌아온 황금복)
5	MBC	일일특별기획(딱너같은딸)
6	SBS	월화드라마(상류사회)
7	MBC	창사특별기획(화정)
8	KBS1	걸어서 세계속으로
9	KBS1	인간극장 2015
10	MBC	복면가왕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SHAKE IT	씨스타
02	IF YOU	BIGBANG
03	심쿵해 (Heart Attack)	AOA
04	이럴거면 그러지말지 (Feat. Young K)	백아연
05	맨정신	BIGBANG
06	뱅뱅뱅 (BANG BANG BANG)	BIGBANG
07	음오아예 (Um Oh Ah Yeh)	마마무
08	마음	아이유
09	WE LIKE 2 PARTY	BIGBANG
10	LOSER	BIGB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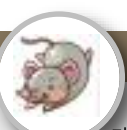
## 숫자 퍼즐 (Sudoku)

6	1	8	9	4				
				8				
		7		3			8	
7	6		4					5
1			8		5			6
5					9		2	4
	2			1		3		
				5				
				9	6	1	4	2

7월 12일 - 7월 18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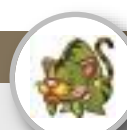
### 쥐띠 | 조금 시간을 두고

● 운수: 아직은 때가 아니니 조금더 진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관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지출이 많은 편입니다. 불안한 상태이니 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소개하거나 이어주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다 믿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지금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말고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2, 15일 길일, 14, 17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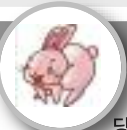
### 소띠 | 모처럼 오는 기회를 잘 잡아

● 운수: 큰일을 앞두고 망설이다가는 상승세를 놓치게 됩니다. 모처럼 오는 기회를 잘 잡아야 하겠습니다. ● 금전: 예상외의 지출이 들어서 은행잔고가 줄게 될 것입니다.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이익이 많지 않겠습니다. ● 애정: 당장 말콤하게 해주고 관심을 쏟아주는 일에만 안주하다가 장래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간파하도록 하세요. 85, 73, 61, 49, 37년생은 13, 16일 길일, 15, 18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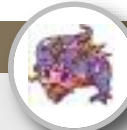
### 범띠 | 특별한 일이 다가오는

● 운수: 분주한 시기입니다. 온전하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 금전: 직장인은 변동이 하고 사업가는 재정비하려는 용단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기대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 애정: 평소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일이 다가오는 있습니다. 그동안 아쉽게 없던 애인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5, 17일 길일, 14, 16일 주의.



### 토끼띠 | 좋은 조건의 일이 생기는

● 운수: 아주 좋은 운이 찾아왔으니 뭔가 시도해 보세요. 지금 당장 시도해보면 좋은 운이 왔다는 걸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재물이 따라주고 행운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수입과 연결되는 좋은 조건의 일도 생기는 희망적인 시기입니다. ● 애정: 숙명적으로 사랑하도록 맺어진 사람과의 만남이 드디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3, 18일 길일, 14, 17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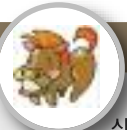
### 용띠 | 다음 기회를 기다리도록

● 운수: 성급하지 말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도록 하세요. 자기 스스로 겪는 심리적 갈등으로 힘들 수 있으니 건강에 유의하도록 합니다. ● 금전: 밀어붙이려는 의욕에 비해서 실질적인 결과가 따라주지 못하니 있습니다. 힘이 점점 빠지게 됩니다. ● 애정: 상대를 바로 볼 수 있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감언이설에 속아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3, 15일 길일, 12, 14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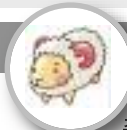
### 뱀띠 | 느낌대로 자연스럽게

● 운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때가 왔으니 최선을 다하도록 하세요. 최상의 결과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금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이 따를 때입니다.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느낌대로 자연스럽게 행동해보세요. 상대가 점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줄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2, 17일 길일, 13, 16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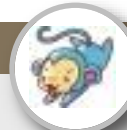
### 말띠 | 사랑은 주는 것

● 운수: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거래에서 다소 거북한 일이 있어도 서서히 열음이 녹듯 해결되어 나갈 것입니다. ● 애정: 자신과는 너무나 달라 보이는 상대에게 끌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3, 18일 길일, 12, 14일 주의.



### 양띠 | 적당한 시간이 필요한

● 운수: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말이나 행동을 주의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언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금전: 밥도 짓기 전에 송충부터 찾고 있군요. 과일도 맛있게 익으려면 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 애정: 배신감과 함께 상대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두 사람 다 책임을 질 일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4, 17일 길일, 12, 16일 주의.



### 원숭이띠 | 낙관적으로 생각하도록

● 운수: 모든 일을 낙관적으로 생각하도록 하세요. 불만이 안으로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무게감이 더해져서 스트레스를 견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 금전: 착실하게 하던 일만 그대로 진행시키면 금전은 증가할 것입니다. ● 애정: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을 아껴야 상대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5, 18일 길일, 13, 16일 주의.



### 닭띠 | 다 때가 있는 법

● 운수: 주변의 이런저런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소신껏 일처리를 하면 인정받아서 원하는 좋은 자리도 얻을 수 있는 운입니다. ● 금전: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요행을 바라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 애정: 한 쪽은 결혼을 서두르지만 아직은 너무 빠른 것 같군요. 좀 더 서로에 대해 아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2, 16일 길일, 13, 14일 주의.



### 개띠 | 감정적으로 끌려가고

● 운수: 감지기 계획을 바꾸면 일을 실패하기 쉽습니다. 잘 타협하고 조심조심하면서 일처리를 해야 성사될 것입니다. ● 금전: 큰돈이 들어와도 곧 큰 일이 뒤따르게 되는군요. 수입이 많지만 지출도 많은 시기입니다. ● 애정: 외롭다가나 아쉬운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끌려가고 있군요. 너무 쉽게 상대를 선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3, 17일 길일, 12, 15일 주의.



### 돼지띠 | 의외의 곳에서 수입이 생기는

● 운수: 믿기는 어렵겠지만 그동안 상상해 왔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 금전: 투자를 하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야 합니다. 의외의 곳에서 수입이 생기고 신중하면 할수록 돌아오는 이득이 커질 것입니다. ● 애정: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상대에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입니다. 더욱 가까운 사이로 발전시켜 줄 계기가 있었습니까. 95, 83, 71, 59, 47, 35년생은 14, 18일 길일, 13, 16일 주의.



## 걸스데이 '링마벨' 차트 싸움이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 팀 = 걸스데이가 신곡 '링마벨'로 컴백과 동시에 차트 올킬에 성공했다. 걸스데이의 정규 2집 '러브' 타이틀곡 '링마벨'은 7일 오전 9시 기준 멜론, 엠넷, 벅스, 소리바다, 네이버뮤직 등 8개 온라인 음원사이트에서 1위를 기록중이다.

1위 소식을 접한 걸스데이는 소식을 통해 "요즘같은 음악 차트 분위기에서 1위를 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며 "큰 사랑을 주신만큼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reddgreen35@news1.kr



## 소녀시대, 국내 올킬 넘어 아이튠즈 7개 지역 1위

(서울=뉴스1) 권수빈 기자 = 소녀시대의 'PARTY'(파티)가 국내외 음악 차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소녀시대는 지난 7일 밤 10시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선행 싱글 'PARTY' 음원을 공개했다. 타이틀곡 'PARTY'는 멜론, 벅스, 지니, 네이버뮤직, 올레뮤직, 엠넷뮤직, 소리바다, 몽키3 등 8개 음악 차트 실시간 1위를 올킬함은 물론 수록곡 'Check'도 각종 음악 차트 상위권에 등극했다.

같은 날 아이튠즈를 통해 전 세계 공개된 'PARTY'는 홍콩, 태국,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7개 지역 아이튠즈 종합 싱글차트에서 1위를 차지함은 물론 홍콩, 태국,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7개 지역 POP 싱글차트 1위 및 홍콩, 태국,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아시아 9개 지역 K-POP 싱글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PARTY'는 신선하고 즐거운 분위기의 여름 팝송으로, 심장을 울리는 베이스 사운드와 소녀시대의 통통 튀는 보컬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곡이다.

소녀시대는 음원 공개와 동시에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SMTOWN 채널 등을 통해 'PARTY' 뮤직비디오도 공개했다. 태국 코사무이의 아름다운 휴양지를 배경으로 행복한 파티를 즐기는 소녀시대의 상큼하고 시원한 모습을 담아냈다.

소녀시대의 오는 10일 KBS2 '뮤직뱅크'를 시작으로 11일 MBC '쇼! 음악중심', 12일 SBS '인기가요' 등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해 컴백 무대를 선사한다.

ppbn@news1.kr

## 최현석 오세득 정창욱 임기학 '셰프끼리', 이탈리아 미식 여행

(서울=뉴스1) 권수빈 기자 = 최현석, 오세득, 정창욱, 임기학 셰프가 이탈리아 요리 여행에 나선다.

최현석, 오세득, 임기학, 정창욱은 SBS플러스 신규 예능 프로그램 '셰프끼리' 출연을 확정 짓고 오는 10일 이탈리아로 떠난다.

'셰프끼리'는 올 봄 방송된 '보내줄 때 떠나라, 남자끼리'의 정규 편성물로, 4명의 대세 셰프들이 서양 요리의 본고장에서 반드시 맛봐야 하거나 꼭 먹어보고 싶은 요리를 찾아 미식 여행을 떠나는 여행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임기학 셰프는 그간 방송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지만 업계에서 이름 높은 셰프로서 그의 첫 예능 나들이에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셰프끼리'는 8월 중 SBS플러스에서 첫 방송된다.

ppbn@news1.kr



## 천지보살

운명  
사주  
궁합  
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TV/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i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 TBO PLAY RATINGS

##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오 나의 귀신님' 박보영 · 조정석, 닮은 듯 다른 남녀

(서울=뉴스1스포츠) 명희숙 기자 = '오 나의 귀신님' 주연 배우들의 현장 스틸사진이 공개됐다.

tvN 새 금토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 제작진은 18일 박보영·조정석의 모습이 담긴 스틸 사진을 공개해 본 방송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개된 사진 속 박보영과 조정석은 레스토랑 주방을 배경으로 서로를 다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특히 서로 닮은 듯한 두 배우의 웃는 모습이 화기에 애한 현장 분위기를 짐작하게 하는 것은 물론, '오 나의 귀신

님'에서 어떤 커플의 모습을 선보일지 더욱 궁금증을 자아낸다.

연출을 맡고 있는 유제원 감독은 "촬영 초반부임에도 불구하고 두 배우의 연기 호흡이 정말 좋다. 특히 순수하고 응큼을 넘나드는 박보영의 매력과 자백 스타 셰프로 분한 조정석의 섹시한 카리스마가 배우들의 명품연기로 더욱 입체적으로 표현돼 커플 케미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박보영-조정석의 커플 케미 기대해도 좋다"고 예고했다.

'오 나의 귀신님'은 오는 7월3일 첫 방송됐다.

reddgreen35@news1.kr



#### 티보플레이 7월 1째주 시청률 BEST 10

- |    |     |            |
|----|-----|------------|
| 1  | KBS | 그래도 푸르른 날에 |
| 2  | MBC | 위대한 조강지처   |
| 3  | MBC | 여자를 울려     |
| 4  | SBS | 돌아온 황금복    |
| 5  | MBC | 딱 너 같은 딸   |
| 6  | SBS | 상류사회       |
| 7  | MBC | 화정         |
| 8  | KBS | 걸어서 세계속으로  |
| 9  | KBS | 인간극장 2015  |
| 10 | MBC | 복면가왕       |

#### 티보플레이 7월 1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CJ E&M | 유미의 방          |
| 2 | CJ E&M | 오 나의 귀신님       |
| 3 | KBS    | 초대형 쓰나미에서 살아남기 |

#### 티보플레이 7월 1째주 최신 영화

- |   |        |         |
|---|--------|---------|
| 1 | 악의 연대기 | 손현주/마동석 |
|---|--------|---------|

### '악의 연대기' 손현주 "시나리오, 매우 디테일해 힘들었다"

(서울=뉴스1스포츠) 장아름 기자 = 배우 손현주가 영화 속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해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잘 나가는 형사 반장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 사건을 맡은 후 궁지에 몰리게 된다. 그리고 젊은 형사 시절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과 마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손현주는 "살다보면 자신의 뜻과 다른 타협하고 때가 묻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나름의 정의로운 시절이 있었다고 말할 하고 싶었던 거 같다"고 설명했다.

손현주는 "백운학 감독의 시나리오가 디테일하고 힘들었다.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냐에 대해 감독님과 고민을 많이 했다. 외롭고 괴롭고 힘든 마음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손현주는 '악의 연대기'에서 최고의 순



간에 우발적인 살인으로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 형사 최반장 역을 맡았다.

'악의 연대기'는 특진을 앞둔 최고의 순간에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최반장(손현주 분)이 자신이 저지른 살인 사건의 담

당자가 돼 사건을 은폐하기 시작하면서 더 큰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예측불허의 추적 스릴러 장르의 영화다. 배우 손현주와 마동석, 박서준, 최다니엘 등이 출연한다.

aluem\_chang@news1.kr

# TBO PLAY

보스톤 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 7월 특별 할인

7월31일까지 모든 신규 가입자 (2년 약정시)  
이동 가입자 7월 시청료 무료

무제한 시청 월:

# \$29.99

(정상가: \$39.99)



공중파, 케이블, 최신 영화, 뮤직비디오 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 콘텐츠를 모두 즐기는 The Best On-Demand, TBO

집에서 TV처럼 편하게 IPTV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 손 안의 미디어, TBO Touch (출시예정)까지 다양하게 즐기세요.

The Best OnDemand, TBO



##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 레지덴셜 리스팅

- 1. 브루클라인 멀티 패밀리:** Rt 9 Brookline. Chestnut Hill Mall 인근에 위치. 총4,271sqft, finished basement 면적 포함. Asking \$1.3 Mil
- 2. Colonial Single Family:** Newton Chestnut Hill에 위치. 1994년에 완공.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총면적 5,000sqft 이상, finished basement면적 포함. Asking \$1.95 Mil
- 3. Belmont 멀티 패밀리 Duplex:** Belmont High School에서 근접한 거리, 편리한 교통. 3,000sqft, 총6Bed, 2Full and 2half baths. Asking \$750,000
- 4. Watertown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편리한 교통. 2Beds 2Full baths. 1914 sqft, finished basement 면적 포함. Asking \$450,000.
- 5. Lexington Single Family:** 1,500sqft, 4Beds 1Full Bath.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sking \$595,000
- 6. 브루클라인 콘도:** 1베드 1베스. 그라지 파킹 포함. 최상의 위치 및 학군. 주말 오픈하우스. 1731 Beacon St Brookline Unit 113. Asking \$499,900

### 비즈니스 리스팅

- 1. Brookline 한식/일식:** 총면적 3,300sqft. 많은 유동인구. Beer&Wine License 포함. Asking \$350,000
- 2. Cambridge 한식/일식:** 총 면적 1,200sqft. Beer&Wine License 포함. Asking \$200,000
- 3. Peabody 중식:** 단독건물. 50+ Parking. Asking \$250,000. Full Liquor.
- 4. Nashua 인근 일식/한식:** NH 단독건물 주차공간 포함. Asking \$175,000. Full Liquor.
- 5. 드롭오프 스토어:** 1,200sqft. 넓은 주차공간, Lots of vehicular traffic. Asking \$35,000
- 6. 드롭오프 스토어:** 800sqft. Asking \$30,000
- 7. 세탁소+드롭오프 스토어:** 최상의 위치. Asking \$1.85 Million. 세탁소 건물 포함.
- 8. 헤어 액세서리 카트 매매:** 보스톤 북부에 위치한 대형몰안, 좋은 위치, 안정적인 수입. Asking 55,000 인벤토리 포함.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05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삶의 장단과 추임새...

가끔은 '얼씨구!'하고 큰소리를 쳐보는 삶이면 좋겠다. 세상을 살면 살수록 신명나는 일보다는 지친 삶일 때가 더 많다. 삶에서 마음은 무엇인가 펼쳐보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지만, 현실은 언제나처럼 높은 장벽을 쌓아두고 있으니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 또한 인생이 아닐까 싶다.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가슴 벅차게 차오르며 꿈틀거리던 젊은 시절의 꿈들이 있었다. 그 시절의 꿈과 이상 그리고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던 젊음이 있었던 것이다. 지나고 보면 모두가 추억이 되고 그리움이 되어 그나마 힘든 현실에서 잠시 쉬어가는 길목이 되어주기도 하는 것이다.

길고 긴 인생 여정에서 생각해 보면 삶의 색깔과 모양과 소리는 참으로 다양하다. 가끔은 다른 이의 삶의 장단에 추임새를 넣어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삶의 모습이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살다 보면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버거운 날을 맞기도 하지 않던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일이 내 앞에 닥치기도 하고 때로는 가까운 이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던가. 그래서 세상

을 살다 보면 내 일 남의 일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얹이 깨달음이 되어 지혜가 되는 것이다.

전통문화와 옛것을 둘러보기 좋아하는 나는 한국을 방문하면 한두 번 정도는 예향의 도시인 전주를 방문한다. 전주는 비빔밥만큼이나 맛깔스러운 고장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언제나 여유로운 즐거움과 넉넉한 누림을 선물해 주어 좋다. 그래서 전주를 방문하면 전통춤과 국악 마당을 즐기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국악 마당의 판소리는 어찌 그리도 우리의 삶의 애환을 그렇게도 잘 그려내는지 그 속에 폭 빠지면 뱃속 깊은 곳에 있던 체증까지 후련해지는 것을 경험한다. 절로 어깨춤이 오르고 신명이 오르는 일 그것이 바로 힐링인 것이다.

우리네 삶의 장단에도 이처럼 추임새가 필요하다. 그것은 다른 이의 기쁜 일에는 함께 즐거워해 주고 슬픈 일에는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과 마음의 여유라는 생각이다. '추임새'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판소리꾼이 창(唱)을 할 때, 흥을 돋우기 위해 고수가 장단을 치면서 '

좋다', '좋지', '얼씨구', '으이' 따위의 삽입하는 소리를 말한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희,로,애,락(喜怒哀樂)속에서 서로의 장단에 추임새를 넣어주며 살 수 있다면 우울해진 마음에 신바람 일렁이는 신명 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본다.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장난기 많고 짓궂은 나는 남편에게도 무엇인가 확인받기를 좋아한다.

"김치찌개 맛있지?"

이렇게 묻고 대답 없으면 또다시 물어본다.

"돼지고기 넣고 끓인 김치찌개가 소고기 넣고 끓인 김치찌개보다 훨씬 맛있단니까." 하고 말이다.

그렇게 되물으면 더 이상 남편은 입을 다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응, 맛있네!!" 하고 대답을 해온다.

어찌 됐든, 함께 마주하고 앉은 식탁에서 서로 오가는 말 속에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다. 앞뒤로 절 받든 겪이긴 하지만 그것도 나쁘진 않다.

이처럼 한국에 있는 친한 친구와 통화를

해도 마찬가지다. 전화로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듣기만 하고 조용히 있으면 심심해지는 것이다.

"얘기를 들으면 대답이 있어야지?!"

"듣는 건지, 마는 건지?!"

이렇게 물으면 친구는 미안한지 얼른 대답을 해준다.

"응, 그래, 그래!!"하고 말이다.

이렇게 서로 소소한 일상에서 장단을 맞춰 주고 추임새를 넣어주다 보면 쌓인 피로가 말끔히 씻기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의 긴 인생 여정에서 가끔은 서로 삶의 장단에 맞춰 추임새도 넣어주는 삶이면 좋겠다. 서로의 장단에 맞춰 춤도 춰주고 울음도 내줄 수 있는 친구가 곁에 있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일 것이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삶이면 더없이 멋진 삶이고 인생인 것이다. 내게 네가 필요하듯 네게 내가 필요한 그런 존재로 마주하고 싶은 오늘이다. 너의 삶의 장단에 맞는 추임새로 남는 나이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의 장단과 추임새가 어우러져 나와 나 우리의 어깨춤이 절로 들썩이는 신명나는 춤 한 판의 삶이면 좋겠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맨발의 청춘**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한국음식은 뜨겁거나 맵다. 물론 차가워 맛이 더한 물냉면도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 음식에 비해 무지 뜨겁거나 맵다는 거다. 비빔냉면은 말하지 않아도 맵다. 떡배기탕이야, 뜨거워 입천장이 데일 정도다. 땀을 뻘뻘 흘리며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고 나면, 이제 먹은 듯 싶다. 감기에 특효는 필필 끓는 콩나물국에 매운 고추가루 한 스푼 넣어 훌훌 마시라고도 하지 않았던가. 감기는 떨어질지 몰라도, 입천장은 남아 나지 않을 게다. 그러니 먹고 난 다음, 음식의 깊고 순수한 맛은 기억할 수 없다. 맵고 뜨거움이 모든 걸 덮어 버린거다.

한국 중앙지 칼럼을 읽었다. 이삼십대 젊은 세대에게 욕을 얻어먹는 건 베이비부머나, 그전 '군세어라 금순아' 판 '국제시장 세대'가 아니란다. 오히려 사십대 후반과 오십대 초반이란다. 소위 '누린 세대' 이고 삼팔육세대를 이른다. 팔십년대 초반엔 대학입시도 그닥 치열하지 않았고, 대학을 졸업하고는 한창 거품경기가 관촬었다. 게다가 아이에프 시기에는 사회초년병이었으니, 명퇴니 하는 것도 피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그들도 나이 들어 지금은 오팔육세대인가? 그 사람들 한창 젊었을 적엔 맨손에 맨발의 청춘이라 스스로들 생각했을 게다.

꽤 오래전 이 친구들을 이런저런 연유로 몇 번 만난적이 있다. 그런데 만나서 몇 마디 나

누었을 적에, 내게 충격은 컸고 그 후유증으로 몇일 우울했다. 이건 순전히 내 느낌이고, 험담하려는 건 아니다. 그 당시 삼팔육세대들은 매우 똑똑하고 야무져 보였다. 헌데, 따뜻한 기운은 없었다. 언변은 청산유수였는데, 눈동자는 그닥 맑지 않았다. 말투는 공격적이었고, 상대는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오히려 나는 무서웠고, 몇 살 더 먹은 게 미안했다. 세상을 먼저 살아 죄송하다 말해야 할 듯 싶었던 거다. 순수한 젊은 기상은 뜨거웠지만 매웠고, 땀었던 기억 뿐이다. 일본 단가 한편이다.

'흥시여, 이사실을 잊지 말게/너도 젊었을 적엔 무척 땀었다는 걸'

맨발에 청춘에선 청바지와 트위스트였다. 삼팔육은 백바지였던가. 요사이, 한국여당 원내 총무라는 이가 대통령에게 대드는 모양이다. 그도 삼팔육일텐데, 고집이 대단하다 했다. 풍문으로 듣는 소식은 별로 유쾌하지 않다. 땀은 땀감이 익어 흥시가 되려면 아직 몇 달은 더 기다려야 할까. 백바지를 벗어던질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시편 103:5)

한 여름이다. 하지를 넘겼고 칠월이니 올해 후반기로 들어섰다. 폭설에 고생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일년이 벌써 켜졌다. 독립기념일 연휴는 잘 지내셨는지.

몇 달 전, 편지를 받았다. 보스톤코리아 독자로부터 온 육필편지였다. 질문에 대한 찬사였는데, 내가 받은 최초의 팬레터였다. 편지를 보내주신 독자는 연세가 지긋하시기에, '신라의 달밤' 과 '홍도야 우지 마라' 를 더 익히 들으셨다 했다. 감사하게 편지를 읽으면서, 육십년대 초중반 '맨발의 청춘' 이란 노래와 영화를 떠올렸다. 노래는 최희준이 불러서

나역시 귀에 설지 않다. 영화는 신성일과 엄앵란이 주연했더랬다. 영화를 봤던가. 내가 너무 어렸을 적인데, 어머니를 따라 봤을 수도 있다. 기억이 가물거리고, 확실치 않다.

눈물도 한숨도 나혼자 씹어 삼키며 밤거리에 뒷 골목을 누비고 다녀도 사랑만은 단 하나의 목숨을 걸었다. ... 사나이 이 가슴을 알아 줄 날 있으리라. (맨발의 청춘, 최희준 노래)



# 고국의 품에서 당신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 **유방·갑상선센터**  
 유방암수술, 재건, 성형
- **암통합케어센터**  
 원스텝 진단에서 치료까지
- **자궁근종센터**  
 수술없이 자궁근종 치료
- **심혈관·뇌졸중센터**  
 심근경색, 뇌졸중, 24시간 진료
- **척추·관절센터**  
 무릎, 어깨, 허리, 비수술 통증치료
- **내시경센터**  
 위암, 대장암, 내시경 치료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www.newyjh.com](http://www.newyjh.com)



### 고국방문 건강검진

VIP 입원 종합검진 남: 200만원 / 여: 210만원  
 입원 종합검진 남: ~~80만원~~ 60만 / 여: ~~85만원~~ 70만원  
 당일 종합검진 남: ~~55만원~~ 45만 / 여: ~~65만원~~ 55만원

### 진료과목

소화기병센터, 자궁근종센터, 건강증진센터, 인공신장센터, 인터벤션센터, 영상의학센터  
 정신건강의학센터, 유방·갑상선센터, 척추·관절센터, 암통합케어센터, 심혈관·뇌졸중센터  
 이비인후과·비뇨기과, 재활치료센터, 응급의학센터



독자기고  
김철

##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3. 유럽인들의 정착촌 건설 (3)

스칸토 일화 (계속)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이주민들은 첫째 겨울에 영양실조와 질병 등으로 반이 죽었다. 고기잡이에 큰 기대를 걸고 왔으나 필요한 도구도 제대로 챙겨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도 몰라서 생존 자체가 위태로울 정도로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1621년 3월 16일 이들에게 기적과 같은 행운이 일어났다. 이전에 영국 선원들로부터 영어를 배운 덕분에 비록 서툴기는 하나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디언 사모세트(Samoset, 1590-1653)가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21일에는 영국의 런던에도 살았던 스칸토(Squanto, 1585-1622)라는 인디언을 데리고 다시 찾아왔다. 이들은 청교도들이 부근 와판노아그(Wampanoags) 인디언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인디언들이 물고기를 잡고 옥수수를 기르는 법을 가르쳐 준 덕분에 백인들은 연명할 수 있었다고 한다. 10월 첫 번째 추수 후 정착민들은 추수감사절 파티를 열고 원주민들을 초대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낭만적 일화는 전혀 역사적 근거가 없는 만들어진 동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디언들이 1621년부터 청교도의 생존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실은 맞으나 백인과 인디언들이 어울려서 가을 추수에 대한 감사의 축제를 열었다는 기록은 1637년에야 처음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Jean Leon Gerome Ferris가 그린 '첫 추수감사절'》

스칸토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삶을 살았다. 스칸토는 1605년에 영국의 탐험대에게 납치되어 영국으로 건너가 영어 등을 익힌 후 1614년에 탐험대의 가이드가 되어 미국으로 다시 오게 된다. 그런데 일부 영국의 탐험대원들에 의하여 스페인 말라가로 노예로 팔려갈 뻔 하다가 수도사들의 도움으로 영국으로 다시 가게 된다. 그 후로 탐험대의 일원이 돼서 몇 차례나 미국을 더 다녀온 뒤 1919년에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38년 생애 중 대서양을 여섯 번 건넜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는 최초의 이주민과 원주민간의 중간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스칸토의 동족으로부터는 신뢰를 얻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역사가들은 그의 갑작스런 죽음은 동족에 의한 독살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스칸토 또는 스칸텀(Squantum)이라는 이름은 플리머스나 퀸시(Quincy) 지역에서 길 이름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원주민들은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고 있다.

그들은 스칸토가 베풀었던 은혜가 재앙의 씨앗이 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스칸토가 했던 일들은 명백한 실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1975년부터 매년 추수감사절 때마다 '반(反)추수감사절(Unthanksgiving Day)' 행사를 열어 억울하게 죽은 조상들을 추모하고 있다. 뉴욕이 화려한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로 흥청이는 날이면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인디언 권리운동의 성지인 샌프란시스코의 알카트라스 섬을 찾아 추수감사절을 애도하면서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이 아니라 '추수감탈절(Thankstaking Day)'을 기념하고 있다. 이들은 "식량을 나눠주며 백인들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명백한 실수였다"면서 "기력을 차린 백인들은 원주민을 배반하고 땅을 빼앗았다"고 말하고 있다. 관점을 달리하면 누구의 축제일은 또 다른 누구에게는 애도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게 된다.

### 북동부 식민지 정착민과의 첫 전쟁

미국 북동부지역 인디언과 유럽인과의 첫 전쟁은 1634년에 발생한 퍼쿼트(perquot)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다. 퍼쿼트 부족은 뉴욕과 코네티컷에 걸쳐 허드슨 강과 코네티컷 강 유역에 거주하면서 상당기간 동안 네덜란드인들과의 모피 교역에서 상당한 재미를 보고 있었다. 한편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서 1620년에 최초로 식민지를 개척한 영국인들은 1628년에는 보스톤지역에 Massachusetts bay colony를 건설하고 이후에도 코네티컷

지역에 계속적으로 식민지를 추가하였다. 1630년대에만 수만 명의 영국인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해 왔다. 영국인들이 그들의 식민지 활동을 퍼쿼트 부족의 영역까지 확장함에 따라 그 지역에서 네덜란드인과의 모피교역 등 경제적 기득권을 지키려는 퍼쿼트 부족과의 갈등은 불가피하였다. 퍼쿼트 부족과 영국 식민지간의 세력 갈등은 1634년 전쟁으로 확대되어 1638년까지 지속되었으며 퍼쿼트 부족의 참패로 끝을 맺었다. 이 전쟁에서 영국 식민지 인근에 거주하던 퍼쿼트의 양속인 모히건부족과 나라간세트(Narragansett)부족은 영국 식민지 세력과 연맹을 맺고 퍼쿼트 부족과 맞서 싸웠다. 패전의 결과로 퍼쿼트 부족의 정치적 존재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생존자들은 서인도제도 등지로 노예로 팔려 나갔다. 전쟁 중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1637년 5월 26일 발생한 미스틱 대학살사건(Mystic massacre)이다. 이날 새벽 코네티컷강 어귀에 위치한 퍼쿼트 부족 마을을 급습한 영국 측 연합군은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였다. 전체 약 400명의 인구 중 살아남은 사람은 채 다섯 명이 안되었다고 한다. 대학살을 주도했던 사람 중 하나인 언더힐(John Underhill) 민병대장은 신이 주신 말씀에 따라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면서 그들의 만행을 정당화하기도 하였다. 훗날 양심 있는 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인종청소 성격의 genocide로 규정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88 조선연무관(지도관의 전신)과 창시자 전상섭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조선연무관은 일본 유도 강도관의 조선 지부이다. 서울 소공동에 있었던 강도관은 우리나라 유도의 본산지이다. 갑자기 해방이 되고 일본인들이 철수함에 따라 이 강도관 조선 지부는 주인없는 도장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도인들에게 그 연고권이 주어졌다. 그리고 당시에 종로구 숭수동에서 도장을 가지고 제자들을 지도하던 유도계의 원로 이경석과 최영호, 강낙원 등이 불허받았다. 이것이 유도회관의 전신이다.

말썽한 정장으로 당시 '장안의 신사'라고 불리던 전상섭, 그는 일본 유학을 한 엘리트였다. 당시 경신중학교(5년제)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그는 이경석의 허락으로 도장의 절반 정도에 공수도부 간관을 내걸고 1946년 3월 3일 부터 관원을 모집하였다. 이것이 조선연무관 권법부의 시발이다. 전상섭은 학창시절 유도를 배웠고 일본으로 가서 동양척식대학에서 가라데(공수도)를 수련하였다. 그리고 1940년 귀국하여 경신중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고 있던 중 조선연무관(지도관의 전

신)을 창설할 수 있었다. 그의 초창기 제자로는 관번1번의 배영기, 동생인 전일섭, 김복남 등이 입관하였고, 훗날 그의 '무통武統'을 이어 지도관을 세운 이종우도 20여일 늦게 입관하였다.

조선연무관은 이렇게 서울에서 태동했지만 체계적인 발전은 전라북도 전주를 중심으로 하였다. 1947년 5월 17일 전일섭이 군산에 지관을 개관하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전 호남지역으로 관세를 넓히면서 발전하였다. 전일섭에 의하면 초창기 5대 기간도장 중에서 지도관이 가장 먼저 지관을 열면서 지방 진출을 하였다고 한다(1945년에 창설된 무덕관은 전국의 철도국 건물에 지관을 열면서 전국적으로 무도를 보급했기에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누가 먼저인지 이견이 있다).

1949년 전임사범으로 일본 유학과 윤패병(본명 윤희병)이 부임하였다. 그의 부임은 도장의 수련생들에게 특별한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는 일본 유학시절 병리학을 전공하면서 가라데를 수련하였다. 그리고 부임 당시에는 7단을 소유하고 있었다. 단段 수로는 당시 우리나라의 무도계의 최고수였다. 일본 무술계

를 주름잡았던 또 한 명의 가라데 실력자 조영주(재일 조선인청년단장 역임)도 귀국하여 합세하였다. 그들은 6.25가 발발할 때까지 조선연무관의 기반을 잘 다지며 우리나라 현대 무도계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었다. 당시의 무도 수련은 일본의 영향으로 품세위주의 수련과 약속대련이 전부였다. 소위 자유대련은 지도관의 경우 3대 관장인 이종우가 맡으면서 본격화 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초창기 조선연무관 권법부 수련생들의 연령대는 10대 후반이 대부분이었고, 20대 초반과 30대도 적지 않게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태권도사나 무도사를 보면 '권법부'라고 적고, 당시의 수련생들의 증언으로는 '공수도부'라는 간관을 내걸었다고 하는데, 1946년 7월 23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당수부'라고 기록했다.128)

5대 기간도장 중의 하나인 창무관의 창시자 윤패병과 창무관의 관장을 지낸 이남석도 초기에는 조선연무관에서 수련하였다. 그리고 윤패병은 YMCA에서 권법부를 만들어서 지도하면서 창무관의 창시자가 되었다. 창무관의 관명은 6.25 이후에 이남석과 김순배가

주축이 되어 'YMCA권법부'에서 개명하였다.

조선연무관의 창시자 전상섭은 6.25때 납북되었고 그 후 윤패병과 이종우가 주축이 되어 지도관으로 개명한 후 윤패병이 2대 관장, 이종우가 3대 관장을 지냈다.

128) 동아일보에 난 기사 내용의 일부를 보면, 제목 "唐手進級者發表", "朝鮮研武館唐手部에서 지난七月一日부터 同二十日까지 冒暑修鍊을 마치고 第一回審査結果 다음의十五名の進級을 보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중급과 초급으로 나누어 명단이 나와있다. 거기에는 관번 1번의 배영기, 전상섭의 동생이며 후일 호남지방에서 지도관의 지관을 열어 그 지방의 무도발전에 크게 공헌하는 전일섭, 그리고 3대 지도관 관장을 지낸 이종우도 보인다. 일개 도장에서, 물론 당시에는 우리나라 현대 무도의 뿌리가 되는 기간도장, 하계훈련을 하고 승급심사를 본 결과를 중앙의 일간지가 기사화 했다는 것은 당시의 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Asian Cultural Center of Boston

오는 여름 보스톤에서  
 자녀들의 삶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one-of-a-kind 배움과 성장의 기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버드대 조교들과  
 함께하는

# Boston Leadership Summer School

Emerging Leaders of the 21st Century 미래선도형 청소년리더 양성 프로그램

**구성**  
 Programs

첫째주(5일) 하버드의 수업 체험을 통한 리더십 연습하기  
 Week 1(5Days) (Experiencing Harvard Classrooms)

둘째주(3일) 나의 적성, 비전, 브랜드 개발하기(Vision School: Self-Worth, Strengths, Vision, and Self-Branding)  
 Week 2(3Days)

**일정**  
 Dates and Times

첫째주(5일) 8월 24일(월) - 28일(금), 오전 8시 반 - 오후 5시 반  
 Week 1(5Days) August 24-28, 8:30-5:30pm

둘째주(3일) 8월 31일(월) - 9월 2일(수), 오전 8시 반 - 오후 5시 반  
 Week 2(3Days) August 31-September 2, 8:30am-5:30pm

**장소**  
 Venue

벨몬트감리교회 (Belmont Methodist Church)  
 421 Common Street, Belmont MA

**대상**  
 Who

뉴잉글랜드 지역의 중고등학생들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in the New England Area)

**모집인원**  
 Participants

각 프로그램 별 40-60명(40-60 per program)

**참가비**  
 Cost

첫째주(5일) 550불 | 둘째주(3일) 180불  
 Week 1(5Days) USD 550 | Week 2(3Days) USD 180

- 두 프로그램 신청시 680불 (Two Programs at \$680)
- 수업료, 교재비, 티셔츠, 수수료, 갈라디너 및 간식비 포함 (Inclusive of Program Fee, Materials, T-shirts, Certificate, Gala Dinner and Snacks)
- 점심 별도 (Exclusive of Lunch)
- 한가족 2인 이상 및 2가지 프로그램 등록시 1인당 50불 추가할인 혜택 제공 (2 members-2 programs registration per family:additional \$50 per person)

**Registration** [www.asialeadership.org](http://www.asialeadership.org)

- 선착순 마감, 필요시 인터뷰 (first come first serve, interview if necessary)
- Registration Timeline

1차 접수기간 First Round	6월 15일(월) - 7월 18일(토) June 15 - July 18
2차 접수기간 Second Round	7월 19일(일) - 8월 15일(토) July 19 - Aug 15

 207-806-6206  
 (10am-12pm ; 2-4pm)  
**Inquiry** [cali@asialeadership.org](mailto:cali@asialeadership.org)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잘 놀아야, 큰 꿈도 생긴다.”  
- 좋은 습관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X -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 열심히 공부하고, 과외 활동하고, 몸과 마음이 자라는 '성장통'을 겪느라 아이들도 부모님도 참 많이 애를 썼다. 성적이 뜻대로 안 나와 마음고생이 많아지며, 싸움이 잦았던 부모님과 아이들은 애를 더 썼다. 걱정하며 하는 일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즐거워서 하는 일, 보람을 느껴서 하는 일보다 훨씬 힘이 들기 때문이다. 억지로 하는 일은 일도 잘 풀리지 않는다. 있는 힘을 다해 그 일에만 매진하여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 대답은 명료하다. 쉬지 않고 일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쉬지를 못하는 것일까?

첫째, 쉬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일에서 오는 성취감을 행복이라 여기고, 자꾸 더 높은 곳을 향해 돌진하게 되면서 '일 중독'에 빠졌던 닥터 박은 근 오년을 쉬지 않고 공부하여 박사 과정을 힘들게 마쳤다. 졸업 후, 연봉 십만불이 넘는 직장에 취직을 하여 여유가 생겼는데, 퇴근 후의 여유가 너무나 거북하고 당혹스러워 어쩔 줄을 몰랐다고 했다. 외로움이 더 심하게 느껴지고, 무력증에 빠져 다른 일거리를 찾으려다가, 이렇게 일만 하면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테라피를 요청했다고 했다. 만성 일 중독을 겪으며 살다보면, 혼자서 쉬는 시간이 못 견디게 고통스러워진다. 이러한 고통을 호소하는 싱글 전문인들이 제법 많다. 닥터 박처럼 힘들어도 쉬는 법을 배우려 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해선 매우 현명한 선택이다. 그 이유를 설명한다.

한국인처럼 쉬지 않고 일하는 민족을 찾기란 그리 수월한 일이 아니다. 그 결과, 한국은 눈부신 업적을 이루었다. 반면, 많은 사람들이 닥터 박처럼 일 중독(workaholic)에 빠져있다. 조선 초기 문신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농학자인 강희맹(1424-1483)은 "사람은 쉬지 않는 것이 병인데, 세상은 쉬지 않는 것을 즐거워하니 어찌 그러한 것일까?" 라고 말했다. 일 중독 상태에서,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 몸과 마음이

피로에 누적되는 만성피로군(chronic fatigue syndrome ; CFS) 증상과 함께 번아웃(burnout)의 상태가 오고 만다. 번아웃 상태마저 무시한다면 결국 마음으로도 신체로 큰 병을 얻게 된다. 이렇게 큰 병을 얻고 나서야 휴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둘째, 나보다 잘하는 남과 자꾸 비교하며 경쟁을 하다 보면, 휴식의 중요성을 무시하게 된다. 자신이 얻은 결과에 감사하기보다 나보다 결과가 좋은 남의 업적을 부러워하거나 경쟁한다 보면 자신이 항상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불안하여 자꾸 일을 더 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자신감과 자존감마저 저하되기 시작한다. 더욱 자기보다 남의 시선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과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다. 자신의 생의 목적이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면, '생'은 획일화가 되기 쉽고, 자신의 꿈보다 사회가, 조직이 원하는 목표가 중요해진다. 그러다보면,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은 무시되기 쉽고, 조직이 원하는 몰개성화된 '나'를 선호하게 된다.

또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삶은 쉬지 않고 시키는 일만 잘하는 일꾼이 되기 쉽다. 그 결과, 자신만의 큰 꿈이 생기지 않는다. '큰 숲'을 보는 능력보다, '한 그루의 나무', 혹은 '한 나무의 가지'에 자신의 가치를 두기 쉽다. 자신의 꿈보다, 남이 해왔던 꿈을 모방하게 된다. 모방된 꿈은 이상하게도 정상을 올라갈수록 세상 사는 것이 더 재미가 없어진다. 큰 성공으로 재물, 명예, 지위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쉬는 것이 더욱 힘들어진다. 모방된 꿈의 성취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꿈을 갖기 위해선 새로운 일에 도전을 많이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딛고 일어나 다시 도전하는 용기에서 이루어진다. 실패를 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선, 충분한 자신

만의 휴식을 갖는 시간이 중요하다. 그럴 때, 큰 꿈이 생겨난다.

'트리나 폴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동화책이 있다. 줄무늬 애벌레와 노랑 나비의 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 이야기이다. 줄무늬 애벌레는 매일매일 기어다니며 먹고 자는 게 지겨워졌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찾다가, 하늘로 높게 치솟은 기둥을 하나 발견한다. 호기심에 가득찬 줄무늬애벌레는 기둥에 뛰어 들어서 다른 벌레들처럼 하늘로 올라가려 했다. 하지만 그 기둥은 서로를 밟으며 오르는 애벌레들로 가득차 있었다. 그때, 노랑애벌레와 사랑에 빠져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왔다. 하지만 하늘 높이 치솟은 기둥이 다시 궁금근한 줄무늬 애벌레는 결국 사랑하는 노랑 애벌레를 두고 다시 기둥으로 뛰어들게 된다. 남들을 잔인하게 밟고 한참을 오르던 줄무늬 애벌레는 정상 가까이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다. 꼭대기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 그 사실을 알고도 모두 쉬쉬하며 숨긴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올라왔던 기둥과 유사한 것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이었다. 그때 나비가 된 노랑애벌레가 줄무늬를 찾아왔다. 그는 그녀의 안내를 받아 화려한 호랑나비로 변신한다.

방학은 부모님이 아이들을 애벌레의 삶이 아닌, 나비의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기둥에 붙어 의미없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애벌레들의 삶이 아닌, 나비의 존재를 알고, 알려줄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의 역할을 갖는 삶의 가치를 갖게 해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다. 노랑 애벌레가 노랑나비가 되는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휴식을 통해서였다. 어느 날,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늙은 애벌레의 도움을 통해 자신이 한낱 솜털투성이의 애벌레가 아닌, 속에 나비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늙은 애벌레는 이렇게 조언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의 상태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

을 정도로 간절히 날기를 소원해야 한다. 누에고치가 되면서 너의 겉모습은 죽게 되지만, 너의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남게 된다. 말하자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난 셈이지. 결코 사라지는 것은 아니야. 나비가 한 번 되어 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다른 애벌레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니?"

방학 4일째 되던 날, 에릭 어머니는 긴급 세션을 요청하셨다. 에릭 어머니는 방학의 시작과 함께 학교에서 제공되는 SAT를 등록했다. 문제는 수업 첫 날부터 에릭이 수업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큰 난리를 겪고 겨우 에릭을 SAT 수업에 보낸 후 어머니는 메시지를 보냈다. "에릭이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제가 부모로서 에릭이 말을 듣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나요?" 에릭은 다음 해에 10학년이 된다. 공부 잘하던 에릭이 지난 12월 겨울 학기부터 학교를 안 간다고 해서 어머니는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잦았던 학교 결석에 비해, 전 과목 평균 성적 B 플러스를 받았다. 에릭은 여름 방학 휴식을 요구했다. 에릭 어머니는 B 플러스의 에릭의 성적에 만족이 안되어, 에릭의 요구를 무시하고, SAT 클래스를 등록한 것이다. 어머니에게 긴급 세션을 하기 전, 트리나 폴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을 읽은 후, 자신의 답변을 먼저 찾아 보시기를 권유했다.

휴식은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몸과 마음이 충분히 쉬면서 회복을 하면, 삶의 열정과 집중력이 다시 충전시키는 것이다. 방학은 그러한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근 일년을 쉬지 않고 달려온 아이들에게 또 달리기를 시킨다면, 다음 해 학년에 좋은 성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급할수록 쉬어야 한다. 마음고생이 많았던 아이들일수록 쉬어야 한다. 쉬어야 애벌레가 아닌,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비가 되는 것이다. 애벌레처럼 세상을 기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큰 꿈을 갖고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는 것이다.



Summer 2015 Program  
**Sign Up Now!**

**Essay Writing Workshops: Middle and High School**

Make essay writing easier for you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Enroll your student in a ReadWrite essay workshop where students study the elements of a quality essay and prepare, write and revise up to two essays in class.  
Monday to Friday 9:00 to 11:00 AM  
Weekly sessions run from July 6 to August 14  
\$150 per week/ \$125 Early Bird Discount. Register by May 15.

**Summer Days Program: Grades 3 to 8**

Our Summer Days program offers kids summer fun while they continue to build their reading, critical thinking and writing skills. In between outdoor activities and creative projects, kids read, discuss readings and write related essays.  
Monday to Friday 9:00 to 3:00 PM  
Before care and extended day options available.  
Weekly sessions run from July 6 to August 14  
\$270 per week/ \$250 Early Bird Discount. Register by May 15

**Weekly Year-Round Classes: First Grade through High School**

Students practice essay writing, and critical thinking and reading skills in a small class. Students improve writing skills by drafting, revising and polishing persuasive essays, opinion pieces, narratives and more. Our curriculum and class size are structured for open enrollment, and ensure that each student's needs are met. Classes are held year-round.  
Class schedules can be found at: <http://www.bostonreadwrite.com/schedule/>  
**Classes: (Grades 1-12)**  
• Reading/Writing Workshop (1-4)  
• Literary Analysis (5 to 8)  
• Expository Analysis (5 to 10)  
• Intensive Essay Writing (High school)  
• Tutoring: SAT, ACT, ISEE, SSAT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www.BostonReadWrite.com/schedule/](http://www.BostonReadWrite.com/schedul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이메일 [info@BostonReadWrite.com](mailto:info@BostonReadWrite.com) 이나 전화 857-404-0170 으로 연락바랍니다. 무료 Trial 클래스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하세요!

앤티비( *enjoy & TV* )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착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 Welcome, *tbo*

## 한국 방송 3사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 원하는 한국 방송 원하는 시간에 내 마음대로 무한대로 시청하다



### 티보 플레이만의 특별한 장점

**화질을 비교해 보세요**  
HD TV의 선명한 화질

**YTN 과 아리랑 방송 24시간 실시간 방송 시작!**  
라이브 생방송도 즐기고 원하는 시간에 무한대 시청도

**방송3사와 케이블 합법 계약**  
끊김없이 티비를 시청하세요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 7월 특별 할인!

## 무제한 시청 월 \$ 29.99

7월 31일까지(2년 약정시)

이동 가입자 7월 시청료 무료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서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89)

# 현실과 전혀 다른 은퇴계획

우리가 은퇴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순서 없이 함께 알아봅시다.

**\*평균 수명은 점점 길어짐**

현재 나이가 65세라면 약 90살까지 산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집안 내력이 장수하고 현재 큰 병이 없이 건강하다면 90 이상으로 살 확률이 높습니다. 이 뜻은 64세에 은퇴하면 은퇴 기간이 25년 혹은 30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수한다는 것은 축복이지만 장기간 생활비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일한다.**

노후대책으로 커다란 목돈을 모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이민 와서 사는 한인 동포에게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커다란 이유는 노후대책을 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일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건강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본인은 건강하지만, 배우자의 건강 문제로 오랫동안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회사 사정으로 해고(layoff)되는 수도 있고 자영업 하는 사람은 장사가 되지 않아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은퇴하는 평균 나이가 62살입니다.

**\*집을 줄인다(down sizing).**

은퇴를 계획하는 많은 사람이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기며 얼마간의 목돈으로 노후대책을 계획합니다. 또한, 작은 집으로 옮기면 여러 가지 비용이 적어질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작은 집, 콘도, 아파트, 등 가구 살림이 최근의 모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많은 구매자가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뜻은 집을 줄여 가도 생각했던 커다란 목돈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은퇴자 절반 이상이 집 등을 줄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은퇴자 10명 중 3명

은 더 큰 집으로 이사한다는 통계입니다. (<https://mlaem.fs.ml.com/content/dam/ML/Articles/pdf/AR6SX48F.pdf>)

**\*생각하지 않았던 의료 경비**

의료보험(Medicare)이 모든 의료 경비를 보충할 것으로 계획합니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양로원(nursing home)에 가지 않아도 의료 경비가 매달 \$1,900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년 \$40,000이며 부부가 30년 은퇴한다면 의료 비용으로만 약 \$250,000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목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준비했던 생활비에서 나올 수뿐이 없습니다. 이것이 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충분하지 않은 연금(Social Security)**

미국 은퇴자 1/3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연금에 의존합니다. 다시 말해 연금이 중요한 생활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는 연금의 평균 액수가 \$1,260뿐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연금의 액수가 적어지면 적어지지 높아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은퇴자금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도움**

경기 침체 등으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부모 집으로 돌아오는 장성한 자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경제적인 도움을 줘야만 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은퇴할 때 전혀 계산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물가상승**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물가는 계속 상승합니다. 1년, 3년은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20, 30년 후의 물가는 매우 커집니다. \$100만불 은퇴자금은 20년 후에는 거의 \$50만불로 적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하며 은퇴자금을 너무 많이 모았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저축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적은 돈이라도 은퇴를 위해서 꾸준히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 실수요자들 주택구입 적극 권유

[집마련 마지막 기회?]

주택시장에 대한 엇갈린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여전히 장밋빛 전망이 대세인 가운데 조만간 주택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치솟는 주택가격에 비해 소득 증가가 따라주지 않고 모기지 이자율이 오를 경우 주택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지만 아직 주택시장에서 이 같은 분위기를 찾기 힘들다. 주택시장 회복 후 대출조건 강화, 투자자 구매 등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놓쳤던 구입자들이 올해 대거 주택구입에 나서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실수요 주택구입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주택구입을 적극 권유 중이다. 올해 주택구입에 나서야 하는 이유를 알아본다.

**■ 이자율 4% 시대**

모기지 이자율이 드디어 4%(30년 만기 고정)를 돌파했다. 국책 모기지기관 프레디맥의 지난 11일 발표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 이자율의 전국 평균은 연중 최고 수준인 약 4.04%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상승폭이 가파른 편으로 전주 약 3.87%였던 이자율이 불과 1주일 사이에 무려 약 0.17% 포인트나 치솟았다.

그래도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구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한다. 모기지 이자율이 최근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주택시장 직전 활황기였던 2000년대 중반에 비해 현저히 낮고 지난해 수준보다도 낮다. 지난해 6월 19일 기준 30년 만기 고정 이자율의 전국 평균은 약 4.17% 수준이었다. 최근 모기지 이자율 반등에 놀라지 말고 이자율이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구입하

기에 적절한 시기다.

올해 안에 모기지 이자율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지만 상승폭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저소득층 주택지원책 여전히 유효**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올해가 내 집 마련의 적기다. 주택시장 침체 뒤 한동안 매우 까다롭던 모기지 대출기준이 올해 초부터 하나 둘씩 완화되기 시작했다. FHA 융자의 모기지 보험료가 대폭 낮아져 저소득층의 주택구입의 문이 활짝 열렸다.

FHA 융자는 다운페이먼트 비율이 최저 3.5%로 저소득층이나 첫 주택구입자들의 주택구입 때 주로 활용되는 융자다. 반면에 다운페이먼트 비율이 낮기 때문에 대출은행 보호 목적의 모기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있다. 저소득층들에게는 이 보험료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올해 초 FHA 융자에 적용되던 모기지 보험료가 연간 융자액의 약 1.35%에서 0.85%로 대폭 인하됐다.

약 80만명의 기존 FHA 융자 대출자들이 융자액에 따라 연간 수백~수천달러의 모기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하 실시로 향후 약 25만명이 FHA 융자를 통해 주택구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모기지 보험료는 수시로 변경되는 편으로 경제여건과 FHA 재정 상황에 따라 향후 얼마든지 다시 인상될 수 있다.

**■ 저다운페이먼트 프로그램**

올해 실수요자들이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낮은 이자율, 모기지 보험료 외에도 큰 장벽인 다운페이먼트 비율이 대폭 낮아졌다. 프레디맥과 패니메는 올해 초부터 마치 FHA 융자와 경쟁이라도 하듯 다운페이먼트 비율을 3%로 낮추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두 기관의 기존 최저 다운페이먼트 비율은 주택구입 금액의 5%였다. 만약 30만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약 1만5,000달러의 다운페이먼트 자금을 마련해야 했지만 이제 9,000달러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해졌다.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해도 좋을 다운페이먼트 비율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전 주택구입에 나서야 할 때다

**■ 집값 급등 더 이상 없다**

집값이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는 인식이 많다. 2012년부터 시작된 주택가격 상승은 약 3년간의 급등을 거쳐 이제 상승 탄력이 많이 약해졌다. 일부에서는 1~2년 뒤부터 주택가격이 정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만약 전망대로 주택가격이 1~2년 더 오르다가 떨어지더라도 장기보유 목적의 주택구입에 적합한 시기다.

주택가격은 언제나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는 순환기를 가져왔다. 지금 집을 사서 몇 년 뒤 집값이 하락해도 처분하지 않고 잘 보유하고 있다가 보면 언젠가 오를 시기가 돌아온다. 만약 지금 모기지 이자율이 높아 주택구입과 보유비용이 높다면 주택가격 하락 때에 연체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모기지 이자율이 워낙 낮아 주택가격이 떨어지

더라도 보유에 따르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임대료 고공행진 지속 중**

주택가격 상승이 잠시 주춤한 사이 임대료는 고공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는 이미 주택구입이 임대보다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택구입이 임대보다 유리한 점은 가계 재정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임대료는 집주인에 의해 항상 조정되는데 지금은 임대료가 매년 오르는 추세다. 반면 모기지 대출을 장기간 받으면 매달 일정 페이먼트 금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비용 상승위험이 사라진다.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휴람 제휴 이벤트



#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성형&전문치료&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 서울메디케어

서울메디케어는 연면적 1000평에 달하는  
서부권역최고 최대수준의 **대학병원급 건강검진센터**입니다

서울메디케어 ·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검진 프로그램  
(수면대장내시경 포함 시 10만원 추가)

종류	남자	여자
휴람기본	<del>62만원</del> → 47만원	<del>78만원</del> → 59만원
휴람청일	<del>120만원</del> → 91만원	<del>138만원</del> → 103만원
휴람VVIP	<del>304만원</del> → 228만원	<del>320만원</del> → 240만원

SEOUL MEDICARE [검진시간 안내]  
평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토요일: 오전 8시 ~ 오후 1시 · 점심시간: 오후 1시 ~ 2시

## 휴람 제휴 이벤트

# 루트모발 이식센터

6명의 모발이식 전문의료진  
4개의 모발이식 전용수술실

휴람제휴 해외동포 '특별이벤트'

모발이식 5만원씩 할인  
수술후 세정제 3만5천원 Free  
생착률을 도와주는 EGF가 3만원 Free

절개	비용	비절개	비용	절개+비절개	비용
4000모	290만원	2000모	400만원	7000모	790만원
5000모	390만원	2500모	450만원	8000모	990만원
		3000모	500만원		

##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 새미치과 특별할인

새미의 이벤트

오스템 임플란트 <del>150만원</del> → 120만원	무삭제 라미네이트 <del>80만원</del> → 60만원	오스템 미백 1회 20만원 + 1회 제공
--------------------------------------	-------------------------------------	---------------------------

고국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임플란트 시술받으세요!

새미치과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웃음을 찾아드립니다.

대표원장 이두형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동부병원 치과 과장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외래교수  
- 대한구강학 안전임플란트학회 정회원  
- 대한구강보존학회 정회원

새미치과 임플란트 치아미백 치주치료 심미보철 예방치료

##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 에디그 에스테틱 특별할인

Professional Skin Care System

에디그 에스테틱이 특별한 이유!  
럭셔리인테리어와 고급관리  
1:1 전문관리와 프라이빗 룸  
동안 미스 스킨 케어 마사지

이태리 최상의 브랜드 사용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관리사

스페셜 힐링 케어 - Facial care + Healing back care - 120 min <del>19만원</del> → 15만원	스페셜 힐링 스칼프 케어 - Healing scalp care + Facial care - 120 min <del>20만원</del> → 16만원	스페셜 슬리밍 케어 - Facial care + Slimming leg care - 120 min <del>25만원</del> → 20만원
전신 홀리스틱 아로마 케어 - 아로마 전신케어 + 강력보습케어 <del>32만원</del> → 26만원	전신 고주파 케어 - 고주파 전신케어 + 강력보습케어 <del>38만원</del> → 30만원	나이가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아름답게 나이 드는 방법이 있다. 에디그만의 특별한 관리로 시간의 흐름을 잠시 멈추보세요



미국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이메일 haramceo@haram.kr

한국문의 82.70.4141.4040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카카오톡 010.3469.4040 / ID:huramkorea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부동산법] 주택 및 상가 매매 계약서 체결시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야 하나요?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뉴저지 부동산 법을 중심으로 한 주택 및 상가 매매에 따른 진행 과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매매 절차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인 변호사 검토(Attorney Review) 과정과 그 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주요 내용들을 독자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주택 구입을 결정하시게 되면, 먼저 초기 계약금과 함께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 일반적으로 약 3일 동안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구매자 측 변호사는 매매 계약서의 내용 상, 구매자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과 특별히 불리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계약서의 내용 검토 후, 구매자 측 변호사는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고 각 구매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계약서에 추가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긴 Rider초안을 작성하여 판매자 측 변호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후 상호 합의를 통해 Rider를 체결하여 매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약 5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를 “변호사 검토 기간”(Attorney Review Period)라고 부릅니다.

매매 계약서는 클로징까지의 구매자와 판매자의 권리 및 의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만약 이 기간 동안 특정한 상황 및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의 해결 방안 및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에서 모기지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 그때까지의 모든 계약금(Deposit)을 아무런 손실 없이 돌려받는 Mortgage Contingency, 2) 건물 점검(Inspection) 중,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필요한 Inspection Contingency, 3) 판매자가 클로징 전까지 매매 가능한 타이틀(Marketable Title)을 주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한 Title Contingency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콘도를 구매하는 분들은 Condo Association의 정관, 재무 제표 등의 관련 여러 문서들을 검토한 후, 만약 그 문서의 내용상 구매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코압의 구매자분들도 비슷한 내용이 필요하며, 코압의 경우에는 Board

Meeting에서 승인을 받지 못할 시 모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Board Approval Contingency도 필수입니다. 변호사 검토 기간 동안 구매자 측 변호사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 요소 중 다른 하나는 만일 판매자 측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포기할 경우에 대한 보상 및 해결 방안에 대한 명시입니다. 그러므로 변호사 검토 과정은 주택 매매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현재 임대차 계약이 있는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모든 계약 내용이 잘 이행되고 있고 연체된 임대료는 없는지, 구매자가 매매 성사 이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지속하고자 하는지 또는 임대차 계약이 없는 건물을 구매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려와 명시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매매에 포함되는 비품, 설비, 가구 등의 포함 여부, 환경 문제 및 검사 등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확인, 솟세일 진행 여부 등 각 매매의 상황에 따른 여러 조항들이 변호사 검토 기간 중에 명시되게 됩니다.

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검토 과정을 거치는 주택 매매와 달리, 상가 건물 매매 시에는 미리 선임된

양 측의 변호사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협상과 검토 과정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의 매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위의 내용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 칼럼에 관한 내용이나 부동산 관련 법률에 대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번에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 나에게 도안이 왔다면?

박성진 원장님이 제안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 수술  
 이제 휴람을 통해 눈의 불편함을 해결하세요!

- 1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1시간 정도)  
 기본검진, 백내장, 녹내장, AS(초음파) 초음파검진, 안압검진, 시력검진, 시야검진, 시신경 검사  
 -25만원 → 20만원
- 2 4050라식/라섹 / 노안 수술 레이저 노안교정  
 -200만원 → 170만원
- 3 백내장 수술 (단안) 일반 백내장  
 콘시 + 렌즈 + 백내장 동시교정  
 -150만원 → 110만원

### 속(?) “좁은 여자가 아름답다”

5% OFF

질 이완, 불감증, 요실금... 한번에 해결!

- 양귀비 수술 (시술시간 15분 / 회복시간 1시간) 150만원
- 요실금 수술 (시술시간 20분 / 회복시간 1시간) 150만원
- 이쁜이 수술 (3D레이저/임플란트/영동수술) 300만원
- 그 외 수술 : 음핵수술 100만원  
 소음순 수술 200~400만원

### 남성 비뇨기 정밀검진 특별할인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휴람 특별가 정밀검진을 통해 당신의 비뇨기를 점검해보세요

배뇨장애 + 발기장애 + 갱년기 + 조루 + 비뇨기암 검진

-95만원 → 80만원

남성·여성 비뇨기과 수술전문병원  
 한국 성과학 연구소 운영

주요수술  
 전립선비대증, 발기부전, 성기확대술, 조루수술, 요실금수술, 질양형술, 정관수술, 정관박탈술 등

이윤수 & 조성완 비뇨기과

###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 대한민국 1등 성형외과 특별할인

안면 윤곽술, 안면 거상술, 윤곽 리프팅을 결하는 한국 성형외과에서 자신감을 찾으세요!

안면거상술 (얼굴)	안면거상술 (목 포함)	매쉬 리프트
-700만원 → 500만원	-800만원 → 600만원	-300만원 → 300만원
상안검	하안검	중안면 거상
-200만원 → 150만원	-200만원 → 150만원	-300만원 → 200만원

www.huramkorea.com

미국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이메일 huramceo@huram.kr

한국문의 82.70.4141.4040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카카오톡 010.3469.4040 / ID:huramkorea

www.pospay24.com



# POS 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 Lee Associates

# 이경해 부동산

##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25%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음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보스톤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일식식당, 연매상 \$700,000 Beer&Wine 19년 만에 소유자 은퇴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뉴햄프셔(보스톤에서 1시간 거리)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고급동네

일식식당 풀 리커 면허증, 연매상 \$700,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연매상 \$165,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보스톤 서쪽, 연매상 \$310,000 연매상 \$270,000 각각 매매 가능

스프링필드 지역, 부동산,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60,000  
21E Test 완료, 은행융자 가능

동양식당 변화한 푸드코드, 연매상 \$360,000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20,000 18년만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랍 스토어 연매상 \$70,000 매매가격 \$19,000

섬머빌 지역 런드로맷 연매상 \$115,000 좋은 렌트

네일살롱 매매, 여러장소 고급동네들 연매상 \$70,000 - \$910,000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9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 2015 여름방학 프로그램

### I .SAT I (Old, New)

- 기간: 6.22~8.21  
(3주단위,3 sessions)  
월~금요일 수업
- 특징
  - 3시간의 수업을 포함한 종일프로그램(9:00~5:30)
  - 최고의 전문 강사진
  - 엄격한 학생및 학사관리 (home work, 단어 test, 매일 test결과보고서 발송)
  - 다양한 선택 가능성

### II. College App Essay

- 기간: 7.13~8.21  
(2주단위,3 sessions)
- 수업: 주 3일(2시간)
- 강사: 15년 이상의 강의경력 에세이및 교정 전문가
- 수업내용
  - Common App 에세이 주제
  - 자신에 가장 적합한 주제선정과 표현법
  - 완성도를 높이는 교정법

### III.저학년을 위한 Writing Class

- 기간:7.13~8.21  
(3주단위,2 sessions)
- 수업: 주 3일(2시간)
- 특징
  - 다양한 장르별 글쓰기 수업
  - 오랜 경험의 writing 전문가
  - 문법및 어휘력 향상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